

# 통일교육소식



# 대한민국 청소년 대상 제1회 평화·통일 디카 사진 사이버공모



학교 안팎의 통일체험 학습현장을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을 다시 '읽어내는', 그래서 익힘을 즐기며 깨우치는 마당을 마련합니다.  
이제 평화와 통일은 우리 가까이에 다가와 있습니다.  
앞으로 연2회 정기 공모전으로 이어질 본 '대한민국 청소년 디카 사진 사이버 공모'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응모부문**

- Culture Zone : 우리사회와 지구촌 곳곳에서의 평화와 통일 관련 이미지
- School Zone : 학교 미화 '통일란' 전체 또는 특정 부분 클로즈업 이미지

**응모자격**

- 전국 초·중·고교 재학생

**응모일정**

- 2005년 6월 1일~ 7월 30일

**응모방법**

-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있는 응모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아래 문의/접수 주소로 응모서와 작품 프린터물 3장 우편접수 (단, 응모작품은 담당자 이메일(kdh76@unikorea.go.kr)로 우편접수와 함께 동시 전송)

**응모형식**

- 사진규격(품질) 300만 화소 이상(약 1Mbyte 내외), 사진파일 형태 jpg로 한정

**입선특전**

- 최우수 1명 400만 화소급 디카 및 USB 저장장치 각 1점
- 각 부문 우수 3명 15GB MP3 플레이어 1점씩
- 각 부문 입선작품은 본 소식지 다음호에 게재 및 전시전에 전시 예정

**당선발표**

- 제1회 수상작은 본 소식지 2호(9월 예정) & 홈페이지에 발표 및 개별통보
- 연 2회 정기 공모 예정

**유의사항**

- 응모서 작성시 작품명, 작품설명, 촬영날짜 및 장소 등 기재
- 입상시 신청서 내에 있는 개인정보에 따라 수상 통지 및 경품이 발송되므로 응모자의 이름(실명), 연락처, 주소, 주민번호를 정확하게 입력 요망
- 전송하는 파일명은 반드시 '참가자 성명, 생년월일.jpg' 형태로 제출
- 작품 응모자가 학생신분임을 알 수 있도록 응모서 확인란에 학부모 및 담임교사의 사인 필히 명기 요망

**참고사항**

- 제출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반드시 사진규격과 파일형태 준수
- 수상 작품 일체의 초상권은 통일교육원에 귀속되며 각종 평화·통일 대국민 홍보에 활용됨

**문의/접수**

-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디카 사진 공모 담당자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우 142-715)
- 전화: 02)901-7165 홈페이지 : www.uniedu.go.kr(공지사함)



02	광고-1	대한민국 청소년 대상 제1회 평화·통일 디카 사진 공모		36	NGOs 소개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단순지원에서 '남북교류' 매개자로 자리매김	송경민
04	축사-1		정동영 통일부 장관	40	금강산 체험학습 프로그램	"여기가 금강산!" - 2박3일 체험학습기	최원호
05	축사-2		김호성 서울교대 총장	46	공트	세월, 그리고 두 아내	조영훈
06	창간사		박성훈 통일교육원 원장	52	통일교육 주요행사		
07	우리는 하나			54	6·15이후 두 가지 시선	"남조선을 대한민국이라고 하나요?" "우리는 금강산으로 놀러간다"	김영희 정용민
08	축시	자작나무를 찾아서	안도현	56	변화하는 북쪽 사람들	지금도 '변화하는', '변화될' 미래의 모습들	이영민
10	특별 인터뷰 / 남·북 공인 한의사 1호 석영환	"제2의 仁術인생, 험난하지만 자신 있습니다"	편집부	62	6·15 공동선언의 의미	'6·15 공동선언'의 정신은 '평화'	박효중
14	북한 청소년 생활조명-1	북에서의 365일	김철수	67	통일정보 사이트 소개		국가상징선양회
18	북한 청소년 생활조명-2	탈북 후 남한 교육현장에서는	조명숙	68	현장르포	MBC 느낌표 '남북어린이 알아맞히기 경연'	허윤
21	통일 관련서 300자 서평			75	창간 축하 그림 메시지	린(隣) - 瑞日	임무상
22	Picture & Essay	우리들의 대동여지도	황록주				
24	외국의 통일을 보며-1	독일은 현재 '머릿속 장벽' 극복 중	한운석				
30	외국의 통일을 보며-2	준비-화해-공존의 관점에서 출발	정진상				
33	광고-2	제1기 '통일교육소식' UEM 객원 및 명예기자 모집					
34	외국의 통일을 보며-3	EU를 움직이는 힘은 '조화' 였다	이향규				

2005년 5월 30일 발행(통권 제1호) 등록번호 11-1250054-000033-09 발행인 박성훈 발행처 통일부 통일교육원 www.uniedu.go.kr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Tel 02)901-7160-7 Fx 02)901-7088 주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Tel 02)901-7165 편집위원 오일환, 윤환철, 정용민, 허윤 편집기획·제작 (주)경향C&L www.kup365.com 북디자인 Design B612  
※ 본지에 실린 내용은 무단복제를 금하며 통일교육원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통일조국으로 날아가는 비둘기

정동영 통일부 장관



21 세기의 바람이 이마를 스칩니다. '분단국가' 라는 부끄러운 대명사로 불리는 조국, 지구상 마지막 냉전지역으로 남아있는 한반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 닥친 것입니다. 지난 시대의 낡은 이데올로기를 벗어던진 세계인은 서로의 손을 마주잡고, 훈풍에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남북관계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과거에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놀랄만한 일이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휴전선이 그 증거입니다. 반세기 동안 가로막혀있던 휴전선을 뚫고 회랑이 열렸습니다.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가 연결됐습니다. 배를 타고 금강산으로 가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버스를 타고 금강산 관광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서울 우리 집에서는 아침마다 개성공단 시범단지에서 생산한 '통일냄비'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로 인해 남북관계가 다소 주춤거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 화해와 협력의 바람은 결국 북핵문제 해결과 함께 남북관계를 일상화·제도화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국통일 실현이 이러한 세계적 기류만으로 가능한 건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이 훈풍을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내부의 통일역량입니다. 그중에서도 국민의 지지와 참여는 우리의 통일역량을 증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통일교육원에서 발간하는 '통일교육소식' UEM의 역할은 실로 막대합니다. 우선은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해묵은 갈등을 털어내고 통일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장차 통일조국의 주역이 될 청소년의 가슴 속에 통일열망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소망을 미래로 전달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통일교육소식' 이야말로 우리의 통일열망을 미래로 날라줄 비둘기입니다. 우리의 뜻을 부리에 물고, 21 세기의 훈풍에 날개를 싣고서, 통일조국을 향해 날아가는 비둘기의 모습이 눈앞에 선히 떠오릅니다. 🌈



# '통일교육소식' UEM 창간을 축하하며

김호성 서울교육대학 총장·정치학 박사



해 방과 동시에 맞게된 분단은 민족사의 발전을 가로막는 한편 민족 구성원들에게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이데올로기화 되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가 하면, 참된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 진통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민족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대륙과 해양세력의 잦은 간섭 속에서도 곳곳이 명맥을 이어왔으며, 외세의 압력을 조화의 지혜로 대처하고 이를 민족 발전의 동력으로 승화시켜 왔습니다.

이제 반세기 넘게 지속된 분단이라는 비연속성의 역사를 극복하고 연속적 민족사의 줄기를 찾아 민족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민족의 역사에 대해 탐구하고 그 속에서 통일의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족분단을 극복하는 통일교육이 되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통일교육은 민족교육의 차원을 견지해야 합니다. 통일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족문제이며 민족발전의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통일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 인류사는 민주사회를 지향하고 있고 통일의 과정과 결과가 모두 민주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일교육은 국제이해교육의 차원도 포괄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비단 우리민족의 과제임과 동시에 세계사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통일교육의 지향과 방법이 변화를 거듭해오고 있는 시점에서 일선 교사들의 제안과 참여 속에 통일교육소식 UEM이 창간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소식지를 통해서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통일교육원에 전달되는 통로가 되고 통일교육원과 각급 학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통일교육이 활성화되고 발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 여명 기다리는 마음으로 통일소원을...

박성훈 통일교육원 원장



**은** 해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 매우 '뜻 깊은' 해입니다. 광복 60주년이 되는 해이자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00년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는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일상화되면서 평화와 번영을 향해 꾸준히 발걸음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통일무관심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통일의 시대를 책임져야 할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 및 부정적 인식은 우리 사회가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문제라 하겠습니다.

통일교육원에서는 지난해부터 학교 교단에서 청소년들의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통일교육워크숍'을 전국 각지에서 개최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워크숍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토대로 통일교육원과 선생님들, 선생님들 상호간의 네트워크를 도모하고자 지난해 말 '통일교육소식' UEM 창간준비호를 발간한 바 있으며, 이제 그 창간호를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통일교육원은 이 소식지에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담아 통일교육 담당 선생님들을 비롯하여 통일을 위해 애쓰시는 통일꾼들에게 띄우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일선에서 애쓰시는 선생님들의 경험을 서로 나누고 통일교육원과 선생님들간의 유대가 발전해 나갔으면 합니다.

우리는 이미 통일로 가는 길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그리고 통일의 그날이 점점 더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들이 통일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하나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용미중학교 민족화해연구반(지도교사 김병연) 학생들의 '체험중심' 통일 개발활동 모습 <걸개그림 / 가로 3m, 세로 4m>

## 우리가 그리고 만들듯이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 자작나무를 찾아서

따뜻한 남쪽에서 살아온 나는 잘 모른다  
 자작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저 시인이라는 자가 그까짓 것도 모르다니 하면서  
 친구는 나를 호되게 후려치며 놀리기도 했지만  
 그래서 숲길을 가다가 어느덧 곳은 친구가 멀썩한 백양나무를 가리키며  
 이게 자작나무야. 해도 나는 금방 속고 말테지만

그 높고 추운 곳에서 떼지어 산다는  
 자작나무가 끝없이 마음에 사무쳐 날은  
 눈 내리는 타터 지마고 상영관이 없을끼를 생각하다가  
 어떤 날은 도서관에서 식물도감을 뒤적여도 보았고  
 또 어떤 날은 백석과 예췌년과 솔로호프를 다시 펼쳐보았지만  
 자작나무가 책 속에 있으리라 여긴 것부터 잘못이었다

그래서 식물도 생계도 조직도 헌법도 있고  
 자작나무를 찾아서 훌쩍 떠나고 싶다 말했을 때  
 대기업의 사원 내 친구 하얀 와이셔츠는  
 나의 사상이 의심 된다고, 저 혼자 뒤돌아서서  
 속으로 이제부터 절교다. 하고 선언했을지도 모른다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말해 주고 싶었다  
 연애시절을 아프게 통과해 본 사람이 삶의 바닥을 조금 알게 되는 것처럼  
 자작나무에 대한 그리움도 그런 거라고  
 내가 자작나무를 그리워하는 것은 자작나무가 하얗기 때문이고  
 자작나무가 하얀 것은 자작나무숲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때문지 않은 심성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친구여, 따뜻한 남쪽에서 제대로 사는 삶이란  
 뭐니뭐니해도 자작나무를 찾아가는 일  
 자작나무숲에 나와 내가 한 그루 자작나무로서서  
 더 큰 자작나무숲을 이루는 일이다  
 그러면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깜짝 놀라겠지  
 어라, 자작나무들이 꼭 흰 옷 입은 사람 같네, 하면서



**시인 안도현**  
 1961년 경북 예천 출생, 원광대학교 국문과 졸업  
 1981년 시 '낙동강' 으로 대구매일신문 신춘문에 당선  
 1984년 시 '서울로 가는 전봉준' 으로 동아일보 신춘문에 당선  
 1996년 <시와 시학> 젊은 시인상  
 1998년 소설시문학상 수상  
 <주요작품>  
 서울로 가는 전봉준(1985), 모닥불(1989), 그대에게 가고 싶다(1991),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하여(2001) 등 시집과 연어(1996), 관계(1998), 짜장면(2000), 증기기관차  
 미카(2001) 등 어른들을 위한 동화, 그리고 외로울 때는 외로워하자(1998),  
 사람(2002) 등 산문집

특별 인터뷰



남·북 공인 한의사 1호 석영환을 만나

**지**난 1998년 북한군 88호 병원 진료부장으로 근무 중 강원도 철원군 휴전선을 넘어 정착한 석영환. 평양의학대학교려의학부(동의학부) 졸업, 고려의사자격증 취득, 동의과학원 기초의학연구소(속칭 김일성장수연구소) 연구원 등 그의 북에서의 이력은 화려하다.

그리고 북의 경력만큼이나 남쪽에서의 정착과정 역시 이색적이다. 몇 번의 고배 끝에 2002년 한의사시험에 합격, 남북한 자격증을 함께 취득한 유일한 한의사. '남북공인 한의사 1호'인 그는 현재 '100년 한의원' 원장으로 북한의 고려의학과 남한의 한의학을 접목해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 “한의사 시험 두 번 떨어지니 오기가 발동하더군요”

북한 역량이 남아 있지만 자연스레 남한 말로 얘기하는 말투에서 그의 힘든 정착생활이 이젠 안정기로 접어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처음 대면하는 사람 앞에선 경직된 얼굴, 가족 이야기를 할 때면 입을 굳게 다무는 모습에서 아직은 몸과 마음이 남과 북의 경계 언저리를 맴도는 아픈 생애기가 남아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특이한 경력의 사람이다. 북에서 소위 잘 나간다(?)는 '김일성장수연구소' 연구원을 지낸 한의사였고, 고위간부인 아버지를 둔 덕에 가정배경도 좋아 굳이 목숨을 건 탈북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정적인 환경에 있었다. 그런 그가 목숨을 걸고 휴전선 철책을 넘는 것만으로도 세간에 화제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북에서 하던 한의사 일을 남한에서도 하겠다며 고군분투... 결국 남한에서 한의사의 꿈을 이룬 것이다.

그동안 화제의 인물로 우리에게 TV전파와 신문 지상을 오르내린 덕에 개업한 지 2년이 조금 넘

는 짧은 기간임에도 '밥 먹고 살 정도'는 됐다며 너스레를 떠는 그의 얼굴 표정이 밝아 보였다. 하지만 마음이 편한 것만은 아닐 게다. 남한에서 안정을 찾아가는 만큼 마음 한 켠에는 북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미안함이 가시처럼 돌아나기 때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남한에서 한의사가 되기까지 과정은 험난함 그 자체였다. 그가 겪은 험난함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새터민들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새터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다른 한편으로 굳은 의지와 강한 생활력으로 이를 극복하고 남한에서의 자리매김을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다는 면에서 그러하다.

### “사선 넘어오는데 뉘가 졸업장 챙겨 옵네까”

그는 평양의대를 졸업하고 '김일성장수연구소'에서 재직했지만 남쪽에서 한의사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더구나 아무도 그에게 남한에서 한의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끈기와 인내로 통일부 직원과 함께, 보건복지부와 한의사협회를 문지방이 닳도록 찾다녔다. 마침내 한의사협회 소속의 한의사들과 통일부, 보건복지부 직원 입회하에 치른 구술시험을 통과하고 한의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취득했다. 북한에서 대학졸업증명서를 가져온 것도 행운이라면 행운.

이후 자격시험에서 두 번 낙방하고 세 번째에야 합격통지를 받았다. 현재 성인병 분야에서 나름의 명성을 얻고 있는 그는 지난해 동료 탈북의료인들의 권리를 찾고, 통일 후 남북한 의료통합에 보탬이 되고자 의료인 출신 새터민 10여 명과 함께 '탈북의료인협회'를 만들었다.

북한의 전문인력들이 남한에 정착하는데 가장

# “제2의 仁術인생, 험난하지만 자신 있습니다”



석 원장이 펴낸 <생명을 살리는 북한의 민간요법>. 이 밖에도 <등산도 하고 산삼도 캐기>, <김일성장수비법> 등의 저서가 있다



“북한에서 전문직에 있던 사람보고 일용잡부나 하라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자원 낭비”라는 그의 지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북한에서의 경력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보충교육은 어디서 하고 그 이수 여부는 또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전문분야라도 어떤 분야는 인정하고 어떤 분야는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 등 풀어야 할 과제 역시 산재해 있는 게 현실이다



**북에서의 자격증이 남에선...**

북한의 경우 대학 졸업과 동시에 해당 분야의 자격을 주는 반면 우리나라는 별도의 국가 자격시험을 치른다. 현재 정부는 의료분야의 경우 북한 대학졸업장을 가져온 새터민에 한해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교육이념과 학제가 크게 다른 교육분야는 응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 산업기술 분야는 졸업장 없이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체 심의를 거치면 보충교육을 받고 기사자격 시험을 볼 수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큰 문제는 북한에서 졸업장을 챙겨온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 함경남도 함흥의학대학을 마친 이모(30)씨는 지난해 하나원에서 나오자마자 11개 한의대를 모두 돌며 편입을 시도했으나 허사였다. '졸업장을 제출할 수 없으면 대졸 편입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일용잡부나 하라는 건 국가차원에서도 자원 낭비”**

그는 '탈북의료인협회' 발족취지를 묻는 질문에, “자신들의 밥그릇이나 찾자고 협회를 만든 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한다. 통일을 앞두고 사회적 현안인 의료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정부는 물론 그 어떤 단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안타깝워서 만들게 되었다.

남한에 정착하려는 새터민들이 늘어나면서 북의 전문 인력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놓고 각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한쪽에선 '졸업증명이 없는 전문직 새터민들이 일정한 검증을 거쳐 대학 편입 등 보충교육을 받도록 하자' 고 주장하고 또 다른 쪽에선 '교육 수준과 과정을 검증할 수 없는 북한대학 출신자들에게 의사고시 등의 기회를 주는 것은 위험한 발상' 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북한에서 전문직에 있던 사람보고 일용잡부나 하라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자원 낭비”라는 그의 지적은 새겨들을 만하다. 하지만 북한에서의 경력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보충교육은 어디서 하고 그 이수 여부는 또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전문분야라도 어떤 분야는 인정하고 어떤 분야는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 등 풀어야 할 과제 역시 산재해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새터민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여부는 통일의 시험대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수천 밖에 되지 않는 새터민들조차 남한 내에 정착하지 못한다면, 그 가운데서도 전문인력들이 제대로 정

착하지 못한다면 통일한국의 전망은 그 만큼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통일 뒤 남북의료를 통합하는 연구에도 일조”**

북에서는 시험이라고 하면 무조건 '주관식' 이란다. 남한에 정착하는 북한 학생들이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도 바로 '객관식' 시험 방식이라고 한다. 이처럼 어린 학생들도 적응하기 어려운 것을 이미 성인이 되어 남한에 건너온 새터민들에게 우리네 방식인 객관식 위주의 각종 자격시험을 치를 것을 강요하는 것 그 자체가 그들의 역량을 제대로 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이다. 북한의 의학발달 정도를 묻자, “북한에서 서양의학은 낙후되었지만, 연구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한의학은 남쪽과 큰 차이가 없어요. 특히 심장·혈관계통이 안 좋은 김일성·김정일 부자 때문에 이 분야 수준은 세계적이다”라고 말한다.

우리가 바라는 통일이 남북이 함께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서로의 장점을 받아들이는데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 석원장의 말처럼 북한의 한의학에서 두드러지게 발달된 분야가 있다면 이를 남한의 한의학에 접목시켜 더욱 발전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아직은 자신도 우리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 있는 그에게 '탈북의료인협회 회장' 이란 직함은 버거운 짐처럼 보였다. 그러나 새터민들은 강하다며 “남한 사람들, 이제 조심해야 될지 모르습니다”며 웃음을 머금은 그의 확신에 찬 얼굴에서 희망을 발견한다. “통일이 곧 될 것을 감안하면 지금부터 남북한 의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최신의 방도를 찾아야죠. 탈북 의료인들의 의료경험이 앞으로 남북한 의료 통합과정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편집부



# 북한 청소년들의 일상 24시



**김철수(가명)**  
북한을 나온 것은 2003년 3월. 중국에서 3개월 체류 후 몽골을 거쳐 남한으로 입국한 그가 한국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학교 문을 두드린 것. 얼마 전까지 '자유터학교'를 다니던 그가 지금은 자퇴서를 내고 대입준비 중이란다. 또래 애들보다 많은 나이인 만큼 만학도정신을 발휘, 올해 꼭 대학에 들어가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 본 글은 필자가 북한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쓴 내용임



북한의 교육제도는 11년제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인 유치원 교육을 제일 먼저 받습니다. 유치원 1년, 소학교(과거 인민학교) 4년, 중학교 6년 등 11년제인 것입니다.

유치원에서는 '낮은반' 때에는 주로 김일성·김정일의 어린 시절과 쌓아온 업적, 김일성·김정일을 칭송하는 노래 등을 배우고 '높은반' 때에는 텃셈(더하기), 뺄셈(뺄기) 등을 배웁니다.

유치원 교육을 마치고 나면 소학교로 진학하게 됩니다. 소학교 2학년이 되면 김정일 탄생일, 김일성 탄생일, 아동절(6월 6일) 등 세 번에 나뉘어 '조선소년단'이라는 조직에 소년단원으로 가입하게 되는데, 이때 일종의 결의문인 '조선소년단 입단선서'라는 것을 외워야 하며 시험도 봅니다.

조선소년단 가입기준은 학교생활이 바르고 공부도 잘해야 하지만 학교에서 학급반장(회장)을 했거나 토끼가죽(학교에다 토끼가죽을 내는 이유는 군복무중인 군인들에게 토끼털 모자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입니다)을 잘내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역시 '김일성과 김정일의 어린시절' 과목에서 얼마나 점수를 많이 받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소년단에 가입할 때, 남들보다 늦게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못하고 있으면 먼저 가입을 한 아이들이 이상하게 보고, 또 조금은 바보취급을 당하며 놀림감이 되기도 합니다.

방과 후엔 주로 농촌(시골)학교이든 시내(도시)학교이든 대부분 중학교 2학년 정도면 어른들 일손을 돕기 위해 농촌동원에 나갑니다.

하는 일은 모내기철에는 모를 심고, 여름철에는 밭에서 김매기, 가을에는 가을걷이 등을 돕습니다. 아이들의 손이라도 많은 아이들이 일손을 도우니 어른들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지요. 어릴 때는 농촌동원을 나가지 않는 대신 집에서 공부도 하고 숙제도 하지만 조금 커서부터는 숙제보다는 농촌돌기 비중이 많아집니다.

보통 일주일에 3일정도 나가며 안나가는 날에는 주로 공을 가지고 농구 또는 축구 같은 경기를 하거나 친구들과 과 함께 놀이를 합니다.

■ 남북한 교육과정 이수단위 비교-1 (소학교 - 초등학교)

번호	교과명	북한				남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어린시절	34	34	34	34						
2	경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장군님 어린시절	34	34	34	34						
3	공산주의 투사 김정숙 어머니 어린시절	34	34	34	34						
4	위성	34	34	34	34						
5	(공산주의) 도덕 / 도덕	34	34	34	34			34	34	34	34
6	도화 (미술 그리기)	34	34	34	34						
7	공작 (미술 만들기)	34	34	34	34			68	68	68	68
8	국어	272	272	238	238	210	238	238	204	204	204
9	수학(산수)	170	170	204	204	120	136	136	136	136	136
10	자연	68	68	68	68						
11	음악	68	68	68	68			68	68	68	68
12	체육	68	68	68	68			102	102	102	102
13	우리들은 1학년					80					
14	바른생활					60	68				
15	슬기로운 생활					68	68				
16	즐거운 생활					204	204				
17	사회							102	102	102	102
18	과학							102	102	102	102
19	실과									68	68
20	외국어							34	34	68	68
21	재량활동					60	68	68	68	68	68
22	특별활동					30	34	34	68	68	68

연 34주 = 1학기 16주, 2학기 18주 (여름, 겨울방학 외에 3월달 1주일간 불방학)  
북한 - 소학교의 과목은 총 12개 과목 중 정치과목 4과목(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어린시절, 경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장군님 어린시절, 공산주의 투사 김정숙어머니 어린시절, 공산주의 도덕)을 제외한 실질적인 교과목은 8개 과목  
남한 - 최소 17개 과목(도화 공작-미술로 간주), 재량활동(과목이상), 특별활동(과목이상)





### ‘소년단원’이 되면 붉은 천을 두르죠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면 청년동맹에 가입합니다.

소년단에서 붉은 천(넥타이)을 목에 두르는 것으로 입단표시를 했다던 청년동맹에서는 신분증 같은 것을 소지하는 것으로 청년동맹에 가입 했음을 증명합니다.

학교생활은 대부분 집단활동으로 이뤄지는데 무엇이든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개인주의’란 발붙일 틈이 없는거죠.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학교생활 중 공부에 대한 고민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공부를 뛰어나게 잘해 어떻게든 대학에 들어가려고 선생님들과 많은 상의를 하는 학생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 갈 수 있는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출신 성분(6·25때 월남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있거나, 일제시대 일본순사를 도와 북한에 해가 되는 일을 했거나, 순수 북한인이 아니고 중국의 문화대혁명 때 북한으로 넘어 온 사람들 등) 때문에 대학에 못가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지금 북한사회에는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고 때문에 청소년들이 부모님하고도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자본주의 황색바람을 몰아오는’ 사춘기 때가 제일 위험하다며 학생생활 담당 청년부, 청소년지도원들이 감시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자유시간도 많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 군대에 갑니다.

물론 군 복무 기본정책 역시 무조건 만 17세가 되면 10년의 군 복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예외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무조건 군대에 가야한다는 이런 인식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군대를 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걸려 오니까 지금은 학교졸업 후 군대 가는 걸 꺼려 하고 있습니다. (남한 친구들이 군대 안가려고 하는 이유와는 사뭇 다르죠?)

### 통일이 금방 되는가 싶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주로 남과 북이 하루라도 빨리 통일이 되면 우리 민족이 잘 살 거라고, 통일은 꼭, 아니 빨리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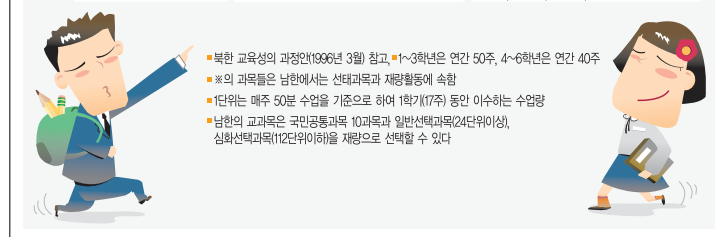
통일에 대한 확실한 이해는 없지만 학교에서는 통일에 대해 많이 다루는 편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이고 미국은 우리북한도 식민지로 만들려고 한다고 가르칩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 대부분은 통일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

■ 남북한 교육과정 이수단위 비교-2 (중학교-중·고등학교)

번호 교과명	구분	북한						남한										
		학년 학기별 수업 수주 및 수업시간						학년 학기별 주당 수업시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활동	50	50	50														
2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혁명력사				80	80	80											
3	경애하는 령도자 김정일 동지 혁명활동	50	50	50														
4	경애하는 령도자 김정일 동지 혁명력사				80	80	80											
5	공산주의 혁명투사 김정숙 어머니 혁명력사				40													
6	현행 당정책				1주	1주	1주											
7	공산주의 도덕(도덕윤리)	50	50	50	40	40	40	68	68	34	34							
8	국어	250	250	200				170	136	136	136							
9	*문학				160	120	80											
10	*한문	100	100	50	40	40	40	102	102	136	136							
11	외국어	200	150	150	120	120	120											
12	역사(사회)	50	50	100	80	80	80	(102)	(102)	(136)	(136)							
13	*지리	100	100	100	80	80												
14	수학	350	350	300	240	240	240	136	136	102	102							
15	*물리		100	150	160	160	160											
16	*화학			100	120	120	160	102	136	136	102							
17	*생물		100	100	80	120	120											
18	체육	100	100	100	40	40	40	102	102	68	68							
19	음악	50	50	50	40			68	34	68	34							
20	미술	50	50					34	34	68	34							
21	제도				40	40												
22	실습(남-기술, 녀-가사)	1주	1주	1주	1주	1주	1주	136	136	136	204							
23	*컴퓨터				80	80	80	68	68	68	68							
24	재량활동																	
25	특별활동																	8단위

■ 북한 교육과정의 과정(1999년 3월) 참고. ■ 1~3학년은 연간 50주, 4~6학년은 연간 40주  
 \*의 과목들은 남한에서는 선택과목과 재량활동에 속함  
 1단위는 매주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하여 1학기(17주) 동안 이수하는 수업량  
 남한의 교과목은 국민공통과목 10과목과 일반선택과목(24단위 이상), 심화선택과목(12단위 이하)을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다



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왔을 당시 북한은 그야말로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이제 통일이 되는가’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느낀 것은 ‘남한도 통일을 많이 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화면에 나오는 김대중 대통령을 보려고 TV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통일이 금방이라도 되는 줄 알았죠.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남한도 통일을 원하고 통일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미국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걸 한번도 들은 적이 없고 그래서 북한사람들은 미국이 그냥 ‘나쁜 나라’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는 여전히 북한 사람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

### Q 소년단과 청년동맹의 구체적인 조직생활은?

A 소년단에서는 반드시 ‘항상 준비!’ 라는 구령으로 선생님이나 학교방문 손님들에게 인사해야 합니다. 꼬마계획(토끼기르기 등)과 ‘좋은 일하기 활동’, ‘2일 및 주 동맹 생활총화’와 각종 행사 참가가 주 활동내용입니다. 그리고 소년단에 가입하지 못한 학생보다 생활을 더 잘해야 합니다. 청년동맹에 가입하면 소년단 때보다 더 강도 높은 집단생활에 좀 더 엄격한 학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만약 어떤 행사나 학교일에 빠지거나 규율에 어긋나는 돌출행동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비판이나 제재 역시 엄하게 합니다.



이럴테면 ‘자아비판서’를 작성한다든가 또는 따로 청년동맹 지도원한테 혼이기는 건 다반사고 당분간은 눈 밖에 날 정도로 차가운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 15세가 되면 청년동맹에서 ‘붉은 청년근위대’가 결성되어 약간의 군사훈련과 동시에 사격술을 배우게 되는데 한 사람이 3발정도 실제 총을 쏘는 연습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힘든 군 생활을 일찍 맛보게 됩니다.

### Q 방학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A 전에는 9월에 새학기가 시작되었는데 2003년에 바뀌어서 지금은 4월에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남한보다 한달 늦게 시작하는 셈이죠. 방학은 조금 다릅니다. 여름 방학은 남한과 같은 시기인 8월에 하지만 겨울방학은 1~2월 거의 두달동안 방학인 남한과 달리 1월 한 달만 방학을 합니다.

### Q 수업시간과 방과 후 주로 하는 활동은?

A 등교는 아침 8시 20분까지 합니다. 수업시작은 8시 50분에 합니다. 45분씩 수업을 받고 낮12시 30분이 되면 점심시간입니다. 오후 수업은 오후2시10분에 시작하여 3시 40분에 끝납니다. 방과 후에는 주로 농촌동원이나 농구, 축구 등 경기를 하거나, 청년동맹 총회·사회봉사활동을 합니다. 봉사활동은 주로 산에 가서 묘목 심거나 학교 벽돌쌓기, 아니면 학교 나무심기와 같은 것을 합니다.

### Q 남한 학생들과 비교해서 다른 점은?

A 개인활동보다는 단체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이 제일 큰 차이점이죠. 북한 학생들도 남한 학생 못지않게 무슨 일이든 성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북한 학생들의 경우 공부에 대한 압박감은 남한 학생들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남한 학생들보다 폭

넓은 지식 습득 기회가 매우 적습니다. 그 이유 역시 공부도 중요하지만 혁명사상과 사회주의 주체사상에 관한 교육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이겠죠. 외부 세계를 잘 모르고 읽을 수 있는 책도 아주 제한된데다 그것마저도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책들뿐입니다. 왕따나 학교 폭력 따위의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혹 왕따를 당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한처럼 심하지 않습니다.

# ‘우리식’ 강요는 그네들을 괴롭힐 뿐이에요



조명숙 자유터학교 교장

1996년부터 중국으로 탈북한 북한 형제들을 돕는 일을 하면서 그들이 우리와 얼마나 다르게 변화하고 교육되었는지를 실감, 1998년에 귀국하면서 대안학교 '두레자연고등학교'에서 교육경험을 쌓는다. 이어 북한 청소년들이 우리와 하나가 되려면 남한의 공교육처럼 교육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 자유터학교 (야학) 개설과 여명학교 (주간)개교를 이끌어 낸다

**남**한으로 건너온 북한 학생들의 적응을 돕는 대안학교 (자유터학교, 여명학교)를 운영하면서 북한과 북한 학생들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는데다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해 탈북 학생들의 어려움을 배가시킨다는 반성을 많이 한다. 그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적응논리로 이 아이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어떻게 배웠는지는 관심도 없이 '우리식'으로만 아이들을 괴롭혀 왔던 것.

통일을 앞둔 상황에서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는 탈북 청소년들을 교육하여 북한과 북한 사람, 특히 북한의 교육에 대한 이해를 통해 그들에게 맞는 교육과정과 교수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우리민족 고유문화를 익히고 남한 사회에서도 소외받는 장애인들과의 만남 프로그램 등을 운영(사진) 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명학교'나 '자유터학교' 같은 곳은 학력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은 검정고시에 합격해야 한다는 생각에 맘이 급하다.

남한 학생들에게는 그저 상식인 것도 탈북 청소년들에게는 외워 익혀야 될 지식이며, 특히 시험 볼 때 문제가 요구하는 내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이나 중국에 남아 있는 가족들 걱정으로 불안해하고 실제로 가족에게 무슨 일(체포나 송환, 남한행 실패)이 생기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기 일쑤이다. 때로는 직접 중국에 나가 가족을 돌보고 그들의 안전을 위해 목숨도 걸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때면 아예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되기도 한다.

부모가 중국 공안에 잡혀 복송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학생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못하고, 울면서 오염하는 아이를 상투적인 말로 위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 국사시간

"선생님, 북에선 고구려가 삼국통일 했다고 배웠는데요?"

삼국통일에 대해 설명하는 도중 한 학생이 "선생님 북에서는 모두 고구려에 의한 통일이라고 배웁니다"라며 수업내용에 의문을 제기한다. 국사 선생님께서 중국 사서나 여러가지 역사자료들을 근거로 일일이 확인해 주고 난 이후에야 "아! 이거 북에서 배운 역사는 다 거짓말이구나. 북에서는 고구려가 삼국통일을 했다고 배웠는데..."라며 황당해 했습니다.

북은 북쪽을 중심으로 역사가 계승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이라 하지 않고 고구려에 의한 삼국통일이라고 가르친다.



그래서 남북국시대(신라-발해)의 역사와 조선의 역사는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 즉 고구려의 평양 - 고려의 개성 - 북한으로 정통성이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 국어시간

'닭알' 대목에서 아이들은 나름의 추억에 젖어요 소설 '사랑방손님과 어머니' 단원을 공부할 때 학생들은 '닭알'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북에서는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침을 삼키면서 아버지가 드시는 걸 구경만 하다가, 혹은 아버지가 술 취하셨을 때면 얼른 훔쳐 먹고 혼날까 봐 도망가던 옛 추억이 생각나서 그렇다고 한다.

## 수학시간

“수학용어에 왜 ‘열법’이 나오나요?”

집합 시간이었다. 다음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라'는 문제를 풀고 있었다. 늦게 들어온 한 아이가 문제를 한참을 보더니 “선생님 ‘열법’이 뭐예요?” 하고 물었다. 원소-나열법을 원소나열법으로 이해한 것이다. 남한의 학생들에게는 익숙한 ‘원소’, ‘나열’ 같은 한자어 단어들인 북한 아이들에게는 생소하기만 하다.

그렇지만 북한의 수학책을 보면 우리말이 그대로 살아있음을 느낀다. ‘집합’은 ‘모임’으로, ‘공집합’은 ‘빈모임’으로, ‘교집합’은 ‘사귀’으로, ‘여집합’은 ‘나머지 모임’으로, ‘전체집합’은 ‘웅근모임’이라고 한다. 정겨운 단어들이다.

안 배워서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학생들은 북한의 학교현장에서 배우지 못했거나 왜곡되어 배운 것들, 또는 식량난으로 학교수업을 받지 못해서 익히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가르칠 때 남한의 일반 아이들보다 시간과 에너지가 몇 배가 더 든다. 스트레스는 교육을 받는 아이들쪽이 더 심하게 받는다. 혹여 선생님이 자기에게 질문할까봐 수업시간 내내 맘 졸이며 선생님과 눈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아이들의 심정은 오죽할까...

통일을 앞둔 우리네 현실에서 누군가는 해야 할 일. 우리가 먼저 다가가 다독여 가르치고, 참아내며 이 아이들이 우리네 교육 현장에 잘 적응해 나가도록 도와줘야 한다. 통일 후 우리의 반쪽이 겪을 혼돈을 미연에 방지하는 대안을 이 아이들의 맑은 눈에서 찾아야 한다. ☺

### 여명학교는

## 중·고교 과정 이수와 남한문화 익히터

여명학교는 새터민 청소년들을 위한 도시형 대안학교로서 23개의 교회가 이사회를 구성하여 지난해 9월 14일 개교하였다.

교사진은 전임교사 9명(교장, 교감-한문, 교육,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국사, 사회)과 강사 9명(음악, 미술, 체육, 중국어, 단소, 노래, 기타, 컴퓨터), 미국인 강사 3명(회화, 영어, 연극)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수업은 특성화 중·고등학교의 기준에 따라 남한의 또래 학생들이 배우는 지식과 학교생활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학교는 학생들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갖도록 하는 한편, 졸업 후 상급학교(일반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남한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학생 수준에 맞춰 학력별로 교육할 뿐 아니라 북한에서 배운 왜곡된 지식을 비교하여 교정하는 수업을 하고 있으며 월 2회 문화체험을 통해 남한의 문화를 실질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 2월에 총 5명의 졸업생과 2명의 수료생을 배출, 전원이 대학에 진학하는 기록을 남겼다.

여명학교는 기독교 학교로서 학생들이 자아를 발견하고 민족의 통일에 선한 일꾼이 되도록 가르치고 있다.

- 주소 :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680-293, 4층
- 홈페이지 : www.ymschool.org
- 연락처 : (02)888-1673

### 자유터학교는

## 남북한 차이 극복을 위한 민족야학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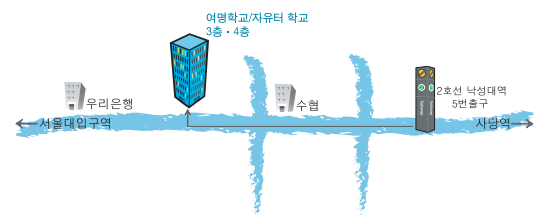
자유터학교는 남한에 이주한 북한 청년들을 위하여 난민지원 기독교 자원활동가모임 ‘피난처’가 2003년 1월에 설립한 비정치·비영리 교육공동체 통일학교다. 자유터학교는 여명학교 시설을 이용, 야학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요 과목은 영어와 중국어, 검정고시 준비, 문화활동 등이며, 여명학교의 시스템이 탈북 중·고등학생을 위한 교육 모델이라면 자유터학교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남·북한 교육과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을 빠른 시간에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민족야학 모델이다.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수업이 진행되는데 교사들은(한국인, 미국인 교사) 자원 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매주 토요일마다 학생들 중 단독으로 사는 대학생, 대학 준비생들에게 김치와 반찬을 나눠주는 ‘나눔 창고’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주소 : 여명학교와 동일
- \* 낙성대역(2호선) 5번출구 150m 전방
- 홈페이지 : http://unischool.org
- 연락처 : (0505)446-4646(자유자유), (02)525-7105



## 통일 관련서 300자 서평

### 사건과 그림으로 보는 북한 현대사 (1945~)

한국 전쟁 후 반세기가 흘렀음에도 '북한'은 아직 우리에게 금기의 대상이다. 이는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 자체를 불가능했고 그 결과 북한은 우리에게 너무도 먼 나라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이 책은 분단 이후 전문가들의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북한 현대사를 연구실 밖으로 끄집어냈다. 특히 일반인은 물론 청소년들 또한 읽기에 전혀 부담이 없도록 사진과 그림 자료를 많이 곁들인 것이 특징. 북한을 무조건 '악의 축'으로 보는 것도, '주체의 나라'로 보는 것도 잘못이며 북한의 실체를 제대로 알려면 우선 나라의 역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더불어 북한 체제 아래 살아온 북한 민중의 삶의 모습 또한 자세히 소개돼 있어 북한 체제의 이해를 돕고 있다.

- 저자: 김만길
- 출판년도: 2003년 11월 14일
- 출판사: 당대 (02)323-1316 편집부
- 가격: 12,000원

### 분단의 내일 통일의 역사

분단과 통일문제를 '남·북·미의 특이한 삼각관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저자는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분단이 바야흐로 해체기에 접어들어 통일이 통일로 이어지는가 아닌가는 통일운동의 역사적 축적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 저자: 도진순
- 출판년도: 2001년 7월 20일
- 출판사: 당대 (02)323-1316 편집부
- 가격: 14,000원

### 2005 통일교육 기본교재 <통일문제 이해>, <북한이해>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발간하는 교재로 올해에는 보기 쉽도록 사진과 도표를 수록하고 편집체계를 비주얼화하여 기존 북 디자인과 차별화하였다. 또한 최근 남북관계와 교류협력 현황, 북한의 역사교육 및 북한 주민들의 종교생활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 책의 전문은 사이버통일

### 우리 통일, 어떻게 할까요?

한국의 대표적 사학자이자 통일운동가인 김만길 전 상지대 총장의 통일 이야기. 강 전총장이 신문이나 잡지에 기고한 글들과 통일강연 원고를 위주로 엮었다. 왜 통일을 하는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왜 분단이 되었는지, 분단시대를 통해 우리 민족사회에서 통일을 위한 어떤 방법들이 제시되었는지, 통일정책 및 통일운동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저자는 협상통일은 시일이 많이 걸리는 통일방법이며 반드시 그 앞 단계로서 평화공존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 후에야 본격적인 통일과정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서 '대동'

교육센터 (www.uniedu.go.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통일교육총서>,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통일교육총서>가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해 나가기 위한 관계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발굴하여 발간한 책이라면,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는 흥미가 있거나 쟁점이 될 만한 주제를 선정, 간략하고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는 시리즈 간행물이다. <통일교육총서>는 '북한 농업 개혁의 현황과 전망' 등 11권,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유류연합의 교훈' 등 4권이 발간되었다. (www.uniedu.go.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통일교육지침>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흐름 속에서 남북관계와 북한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형성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원에서 발간한 교재. 올해에는 최초로 학교용과 일반용으로 나누어 편찬하여 대상별로 교육내용을 차별화 하였다. (www.uniedu.go.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05 통일백서>

2004년 한 해 동안 한반도 평화정착

과 공동번영을 위해 쏟은 정부의 노력과 성과들이 빼곡히 담겨있다. 평화번영정책, 남북회담, 교류협력, 경수로 사업, 인도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유익한 자료들이 집대성 되어 있다. (발행처 : 통일부 통일정책실, www.unikorea.go.kr '자료실' → '통일부 발간물'에서 확인 가능)

### <'이슬이의 북한 방문기' 등 통일교육 영상교재>

최근의 변화된 남북관계에 걸맞게 새로이 통일교육용 영상교재들이 제작되었다. '이슬이의 북한 방문기'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북한 실상을 10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북한 소개 영상물이며, '분단의 20세기 통일의 21세기'는 중·고등학교 도덕·사회과 통일단원에서 주요 소재를 발췌하여 정규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학교용 영상물이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 발전사'는 분단이후 남북관계의 변천 및 발전과정을 시대별로 구별하여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한 것으로 대북정책의 시대별 변천이 잘 정리되어 있다. (www.unied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옥주 미술평론가

현 서울시립미술관 큐레이터. 한국미술평론가협회 간사와 '사진비평' 편집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저서로 '그림으로 쓰는 러브레터', '내 사랑, 미술관' 등을 내기도. 그녀는 '마음과 정신의 교감이 선행되지 않으면 진정한 통일은 어렵지 않겠느냐'며 흘러가다 막히면 새 길을 내면서 다시 흘러가는 강물처럼 분명 통일도 하나의 유기체로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 우리들의 대동여지도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일단 잠자리를 털고 일어나 방과 거실과 화장실과 부엌을 몇 차례 다니 시켰지요. 그리고 나면 일터로 향하고, 다시 저녁때면 집으로 돌아오시겠지요. 그 발걸음을 따라 혹은 지도를 그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걸음 걸음이지만 한번쯤은 내 일상의 수많은 발자국이 어떤 그림을 그려내는지 궁금해지지 않으신지요?

발걸음이 그려낸 그림 중에는 단연코 조선시대 김정호 선생의 대동여지도를 꼽아야 할 것입니다. 하루의 그림이 아니라 자그마치 27년 동안의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그 발걸음이 수시로 전국을 들락거리면서 만들어낸 오랜 그림, 그것이 대동여지도입니다. 그동안 진본이 아닌 영인본으로만 볼 수 있었으나 2004년 2월 최초로 일반에 공개되면서, 사람들은 다시 그 오랜 그림의 위대함, 감히 위대함이라는 말만으로는 다 담아내지 못할 기운을 간직한, 그 걸작의 웅장함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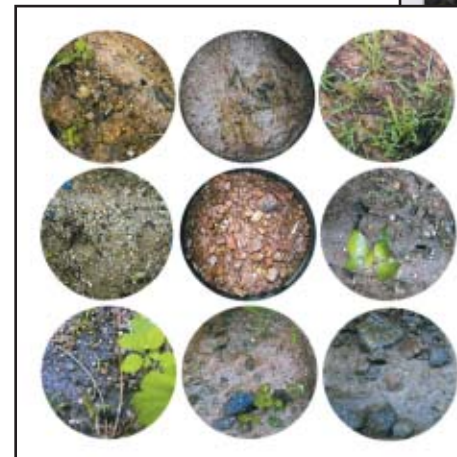
컴퓨터와 인공위성이 그려내는 지금의 지도와 거의 다를 바 없이 정교하기 그지없는 대동여지도. 하지만 여기에는 지금의 것이 품고 있지 않은, 잊혀진 옛 지명이 소담스럽게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또한 더없이 장대하고 위엄이 넘치면서도, 사람의 손으로 굳이 흔들여놓지 않은 자연스러운 땅의 모양새 또한 그대로 간직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지도는 38선 위, 이북의 땅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함께 품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익숙하기만 합니다.

작가 백기영은 아무래도 그 시절 김정호 선생의 마음을, 그 생생한 기운을 직접 느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1년 여 동안 작가는 전국 방방곡곡 대동여지도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지도에 나와 있는 땅과 머무는 발걸음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삶을 눈으로, 가슴으로 담아두었습니다. 그 결과

물이 바로 '생명의 땅 프로젝트'입니다. '대동여지도'라는 부제가 붙은 이 작품은, 대동여지도상에 나타난 지역에서 찍은 땅과 흙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긴 것입니다. 지도란, 단순히 인식론적인 물건이어서 사용하면서는 그 편리함에 별 생각이 없다가도, 막상 그 커다란 실제 공간을 떠올리게 되면 가슴이 먹먹해지게 마련입니다. 머릿속에 구현된 지도와 그곳을 실제로 이루고 있는 땅의 모습을 동시에 바라보면, 마치 발품 하나하나의 오랜 결과물을 만들어낸 김정호 선생의 깊은 속내를 헤아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식물작업'이라는 부제가 붙은 또 다른 작품은 그 여행길에서 수집한 흙에 물을 주며 지낸 다음, 겨울 지나 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저 한 줌 흙이었을 뿐인데, 한 겨울을 견디고 나니 어디 숨어 있었는지도 모를 새싹이 돋았습니다. 너무 큰 것도, 너무 작은 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으로는 결코 단번에 알아챌 수 없는 생명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조금 춥더라도 그렇게 겨울을 버티고 나면 어디서고 새 움이 돋아나는 것을, 어찌 감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김정호 선생은 어쩌면 지도라는 단호함 속에 숨겨진 부드러운 땅과 흙이 지닌 낱알의 기운을 모두 느껴보기 위해, 내디딘 발걸음 하나하나에 스민 생명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27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닐런지요?

그러니 우리도 한 번 해보도록 하지요. 김정호 선생처럼 27년을 매달릴 수는 없겠지만, 또 작가 백기영처럼 1년을 꼬박 내놓을 수도 없겠지만, 매일매일 반복되는 발걸음, 그 걸음걸음 뒤결로 나도 몰래 놓쳐왔던 그림자같은 아름다움을 오늘 하루쯤은 하나씩 기억해내어 자신만의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지요. 거창하지는 않아도, 어느날 그것이 우리들 인생의 대동여지도가 되어 줄 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훗날 지금은 닿지 못하는 저 북쪽의 땅을 밟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해봅니다. 🌍



▲ 도판 1  
'생명의 땅 프로젝트(대동여지도)'  
남해까지의 여행과정에서 찍은 사진과 대동여지도, 61' 34 18개 중 3개, 2004년

◀ 도판 2  
'생명의 땅 프로젝트(식물작업)'  
전국을 여행하면서 가져온 흙에 물만 주어 기른 화분 17개 중 9개를 설치 후 사진 촬영, 2004년

작가 백기영님은 산 좋고 물 맑은 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났다. 홍익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한 뒤 독일 뮌스터 콘스트 아카데미의 석사과정을 거쳐 미술 공부를 하였으며 작고 힘없는 것, 경계를 허물고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것을 작품의 소재이자 주제로 삼아 환경문제와 관련된 작품을 만들고 있다

# 독일은 현재 '머릿속 장벽' 극복 中

## 독일 통일과 사회적 통합의 문제

**동**독 혁명의 원인은 복합적이었다. 사회주의통일당(약칭 : 사통당) 독재체제 하에서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제상황, 그리고 여행의 자유와 인권의 제한에 대한 항의 등이 혁명을 촉발시킨 결정적 요인이었다. 또한 소련과 동구권에서 고르바초프를 통해 시작된 개혁이 없었더라면 1989년 가을, 동독의 혁명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20년 전에 수상에 취임한 빌리 브란트가 신동방정책을 통해서 동·서독관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독일 통일은 어려웠을 것이다. 그는 통일이 단기간에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분단이 낳은 비인간적 결과들을 해소하고 동·서독인들 사이의 민족적 이질화가 심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가 이끄는 사회민주당(약칭 : 사민당)-자유민주당(약칭 : 자민당) 연정은 1972년에 기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차후 동·서독관계의 획기적 발

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다.

이 기본조약은 수많은 이산가족들의 재결합과 매년 수백만의 인적교류를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수많은 접촉은 민족의 이질화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동독인들의 체제 비판적 의식을 강화시켰다. 또한 인적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서독사회를 동경하는 동독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서독으로 이주하려는 동독 사람들의 수가 점점 더 증가하여 결국 동독은 무너지고 독일은 역사적인 통일을 맞게 된다.

또한 동서독인들은 잦은 만남을 통해 서로의 체제와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런 통일이 낳은 문화적 충격을 상당히 완화시킴으로써 혼란을 막을 수 있었다. 기독교민주동맹(약칭 : 기민당)의 당수로서 독일 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헬무트 콜 수상의 통일정책은 기본적으로 브란트의 신동방정책을 계승한 것이었다.





독일의 경제적 통일은 1990년 7월 1일의 통화통일을 이룸으로써 국가적 통일보다 몇 개월 앞서 실현되었다. 동독의 사회주의적 경제구조는 빠른 속도로 서독의 모델을 따라 개조되었다



1989년 9월 11일, 헝가리가 개방한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을 통한, 그리고 프라하와 바르샤바의 서독 대사관을 통한 동독인들의 서독으로의 대량 탈출이 혁명적 전환의 촉매 역할을 했다. 동독 시민운동가들은 대량탈출을 기화로 내정의 개혁요구, 대규모 시위와 당 독재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감행케 된다.

서독의 방송도 동독의 사회적 위기를 심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서독의 전자 미디어들은 헝가리의 국경이나 프라하, 바르샤바 서독대사관의 담장을 넘어 서독으로 이주하려 했던 대규모 동독 탈주자들의 물결과 라이프찌히의 월요데모 장면, 베를린 장벽의 개방 모습 등을 생생한 장면으로 방영함으로써 동독 정권의 붕괴를 가속화시켰다.

1989년 11월 9일 장벽을 즉각 개방하겠다는 사통당<sup>SED</sup> 수뇌부의 선언과 함께 국가적 통일로의 길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고 만다. 매일 서독으로 넘어오는 수많은 이주자들과 동서독 사이의 복지수준의 격차는 신속한 통일 이외의 다른 대안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동독의 국가적 독립성은 유지하면서 사회를 개혁하려던 일부 지식인들의 주장은 점차 통일요구에 의해 잠식되어 갔다. 대중시위의 구호는 이제 “우리가 국민이다”에서 “우리는 한 민족이다”로 바뀌었다.

동독 시민들 대부분은 동독 국가의 개혁 가능성을 믿지 않았으며, 보다 부유하고 자유롭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서독과 통일함으로써 그들의 처지를 더 빨리 개선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었다. 이듬해 3월 18일 동독 의회 선거까지 대부분의 동독 시민들은(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양자의 장점을 혼합한 제3의 길을 원했던 시민운동가들과는 달리) 또 다른 사회주의 실험이 아니라 통일을 원했던 것이다.

### 서독 연방정부의 통일정책

서독의 콜 수상은 1989년 11월 28일 국가연합적 구조를 거쳐 통일에 이르는 ‘10개항 계획’을 선언함으로써 적극적 통일정책으로 전환시켰다. 그해 12월부터 서독정부의 영향력은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이는 직접적이고도 노골적이었다. 동독 혁명은 이제 민족 통일운동이 되었으며 그 무게중심은 이미 내부의 기층민중으로부터 연방정부와 기성정당들로 이전되었다. 즉 ‘밖으로부터의 혁명’이 ‘밖으로부터와 위로부터의 혁명’으로 탈바꿈된 것이다.

혁명은 서독의 직업정치가들과 행정관리들을 통해서 점점 더 주도되어 갔다. 경제·사회관계, 교육문화제도 등 모든 생활분

야에서 서독의 사상과 제도, 자원, 엘리트들이 동독에 이식됨으로써 재구조화 작업이 가속화 되었다.

독일의 경제적 통일은 1990년 7월 1일의 통화통일을 이룸으로써 국가적 통일보다 몇 개월 앞서 실현되었다. 이로써 동독의 사회주의적 경제구조는 빠른 속도로 서독의 모델을 따라 개조되었다. 국영기업들은 1990년 여름 설치된 신탁관리청을 통해서 급속히 민영화되었다. 대부분의 동독 기업들은 낮은 생산성과 과다 고용의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급격한 민영화는 막대한 실업자를 양산해냈다.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전체 피고용인의 수가 930만에서 620만으로 줄었는데, 이는 전체 피고용인의 약 34%가 감소되었음을 의미했다.

이러한 커다란 사회적 위기를 동독인들이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은 서독의 발전된 사회복지제도가 그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주고, 고용창출사업 등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새로운 일자리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으며, 또 막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머지않아 경제가 부흥하리라는 기대를 가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

### 사회적 통합의 문제

통일 직후까지만 해도 동독인들은 통일을 크게 기뻐하고 서독인과 서독의 사회체제에 대해 호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서독 자본과 엘리트의 지배, 자신들의 과거 전체가 무시당하는 문화적 멸시를 경험하면서 서독인에 대한 반감과 동독인으로서의 ‘반발적 정체성’, 그리고 서독체제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동독인들에게서 현저히 증가하였다. ‘만화된 정체성’, ‘머리 속의 장벽’, ‘오스탈기’<sup>Ostalgie</sup>(구동독에 대한 향수)와 같은 표현들은 동·서독인 사이의 관계가 다시금 멀어졌다는 점과 동독인들의 새로운 자의식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새로운 경향은 외적 통일에 이어 성취되어야 할 중대한 과제인 ‘내적 통일’은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동독인이 신속한 통일을 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빨리 서독인처럼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동독지역의 경제는 예상과 달리 빨리 자생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통일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서독지역으로부터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동독인들은 서독지역의 두 배 가까운 실업률이 장기간 지속되자 통일현실에 대해 큰 실망과 불만을 느끼게 되었다. 많은 동독인들이 그 원인을 줄속하게 실시된 화



평등을 훨씬 더 중요시하는 동독인과 자유를 더 중요시하는 서독인 사이에는 분명한 가치관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것은 그들이 과거 45년간 서로 다른 사회체제에서 경험한 사회화과정을 고려하지 않고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폐통합·보상보다 반환을 우선으로 한 소유권문제 해법, 국제 가능한 기업들까지 혈값에 팔아넘긴 민영화 정책, 그리고 불충분한 노동시장 정책과 산업투자에서 찾았다. 그 중 적지 않은 동독인들은 이러한 과정을 '식민지화'로 인식하였다. 경제현실에 대한 불만 속에서 서독식 민주주의에 대한 동독인의 지지가 감소하고 구동독의 사회체제나 과거의 일상생활에 대한 향수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통일과정이 서독의 제도를 동독지역에 그대로 이식하는 소위 '흡수통일'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서독 엘리트들이 통일과정 전반을 주도하면서 또 다른 문제들을 야기했다. 국가에 얼마나 밀착되어 있었는가라는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동독의 엘리트에 대한 총체적인 물갈이가 수행되고 관청과 대학 그리고 기업 등에서 고위직을 주로 서독 엘리트가 차지하게 되었다. 이들은 구동독의 사회·정치구조나 동독인의 심성과 일상생활에 대한 이해없이 서독의 행정규칙과 관행을 관료주의적으로 집행함으로써 동독인의 반서독 감정을 증폭시켰다.

동독인들이 서독의 법률·정치 및 경제체제를 점점 더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된 것은 구동독의 과거가 송두리째 무시당하는 데 대해 심리적 보상을 받으려 하는 것에서도 일정부분 기인한다. 구동독에서 받은 교육과 졸업증, 기술자격증, 직업경력 등 동독에서의 삶의 가치 전부를 하루아침에 상실하게 된 동독인들은 모든 것을 재교육 받아야 했다. 그리고 언론들은 동독인이 국가 의존적이고, 민주주의를 할 능력이 없으며, 권위주의적이고, 자립심이 적으며 개인주의화가 될 되었다는 편견을 확산시켰다. 동독인들은 물론 이러한 평가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동독인들이 구동독의 체제를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방어하려는 이유 때문이었다.

평등을 훨씬 더 중요시하는 동독인과, 자유를 더 중요시하는 서독인 사이에는 분명한 가치관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것은 그들이 과거 45년간 서로 다른 사회체제에서 경험한 사회화과정을 고려하지 않고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동독인들은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사회적 안전이 보장되어 있었고 보다 인간적이었던 사실은 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여기에 실업과 이기주의, 착취로 특징지어지는 서독의 시장경제 체제를 대비시켰다.

동독인들은 국가주의적 사고 경향이 서독인보다 강하다. 그들은 복지정책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경제정책에서도 국가의 개입을 더 강하게 요구한다. 그들이 갖고있는 민주주의 이상형은 서

방적 민주주의의 보다 더 강하게 국가를 통해 근본적인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사회적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 ‘우리’와의 다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

지금까지 우리는 독일의 경우 장벽이 무너지기 전까지 그렇게 많은 인적·물적 양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 '머리 속의 장벽'을 극복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살펴보았다.

독일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남북교류가 깊어질수록 서로 다른 사회체제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적 삶과 서로 다른 사고방식을 편견 없이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내적 통일'의 어려움을 그만큼 덜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규모의 인적양래는 현재의 남북관계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다행인 것은 최근 청소년들의 금강산 수학여행 등을 통해 북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말고 학생들이 북한의 사회체제에서 일상적인 문화에 이르기까지 흥미를 갖고 올바르게 배울 수 있도록 통일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새터민과의 교류도 확대해야 한다. 새터민들과의 접촉을 통해 우리는 북한사람들과의 접촉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것은 새터민 다수가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포용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문화적 동질성을 모색하는 것보다도 우리와 '다름'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인다.

동·서독인 사이의 '내적 통일' 문제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이었다. 남북 통일 후 통화개혁이나 재산권 문제 등을 포함하여 북한 지역의 빠른 경제부흥을 위한 주도면밀한 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이며, 대량실업에 대비한 사회복지제도도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독일의 경험은 우리의 통일 후 일어날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귀중한 시사점을 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



한운석 상지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소 연구교수  
통일 전후 10여년간 독일 유학을 한 그는 현재 한겨레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서울·전국 YMCA 통일위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 준비-화해-공존의 관점에서 출발

## 통일 이전 서독의 통일교육

**독**일이 통일을 이루었을 때 우리처럼 분단되어 있었던 나라가 통일로 이행하는 것을 현장에서 지켜보며 남다른 감회를 가졌었다. 더욱이 독일 국민들이 보여준 차분한 모습은 그곳에 살면서 평소에 느꼈던 그대로였다. 독일에서 거주하는 동안 독일은 월드컵경기에서 두 번이나 결승전에 진출하였는데 그 중 한번은 우승을 하였고, 한번은 준우승을 하였다. 우승을 하였을 때와 준우승을 하였을 때 극단적으로 다른 모습이었다. 우승을 하였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어깨동무를 하고 밤새워 술을 마시면서 우승을 자축하였다. 그러나 준우승을 하였을 때는 경기 전에 집집마다 걸어놓았던 국기를 경기가 끝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순식간에 거둬들이고 곧바로 평상으로 되돌아 갔다.

통일이 이루어지던 때에도 마치 월드컵 경기 때처럼 독일 국민들은 차분함을 잃지 않았다.

독일이 이처럼 열정과 광기에 넘치기 쉬운 순간에도 차가운 이성으로 통일을 맞을 수 있게 된 것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아마도 이러한 저력은 교육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서독은 통일 이전 '정치교육'이라는 형식하에 민주주의 교육, 민주시민 교육 등을 제도적으로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서독 사회의 최대 과제는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전쟁의 가능성을 줄이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서독 정부는 '연방정치교육본부'라는 국가기관을 세우고, '정치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을 함양하는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 독일은 의회민주주의의 모범국가로 발전하였다. 통일과 통일교육은 서독 사회의 주요 테마가 되지 못하였다. 전범국가로서 타의에 의하여 분단되었기 때문에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등 승전국의 동의 없이는 통일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단은 중요한 사회문제이었기에, 서독 정부는 동서독 문제를 다루는 주무기관으로 내독성을 설치하였다. 내독성은 여러 임무를 갖고 있었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통일교육이었다. 연방정치교육본부 역시 정치교육적 차원에서 통일교육을 다루었다. 이와 같이 서독은 국제정치적 여건상 드러내 놓고 통일교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통일교육을 수행하였다.



### 정치교육의 특징

통일 전 서독의 정치교육은 정부가 주도하고 지식인들이 적극 협조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정부가 정치교육을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교육은 특정한 이데올로기 전파에 집착하지 않고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정치적 계도의 성격을 강하게 띠었다. 즉 국민들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여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교육의 목표였다.

이러한 목표 아래 내무성 산하에 설치된 '연방정치교육본부'는 항상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정치교육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방향의(재)정립, 다양한 교재 및 정보자료의 발간 및 보급, 학교와 각 정당 및 사회단체에 정치교육을 위한 물질·인적 지원 등의 업무를 주관하였으며, 초당파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정치교육이 특정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정당이 정부를 구성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것은 다른 의

미로는 정치적 다양성이 보장됨을 뜻한다. 정치적 다양성은 국가가 이념적 중립을 지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가치중립성을 뜻하지는 않는다. 서독의 정치교육은 법치국가의 유지를 기본가치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 이전 통일관련 교육은 주로 '동방지역담당지부'와 '학술부'의 소관 사항이었다. 여기서 다루어지는 연구, 교재선정, 교육자 세미나 등이 궁극적으로 통일문제와 직결되었기 때문이다. 내독관계성 산하기관이었던 '전독일연구소'도 부분적으로 통일관련 교육을 담당했다. 1969년 창설된 전독일연구소는 1991년 해체될 때까지 정책자문, 자료수집 및 편찬, 정책홍보, 동독주민 지원 등 광범위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그 중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통일관련 정치교육과 동독에 관한 정보 제공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 정치교육의 기본이념

통일 전 서독 정치교육의 내용은 매우 광범위하지만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시민들이 비판적 이성을 바탕으로 사회현실에 대한 분석능력과 사회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즉 정치교육을 통해 사회의 불합리성을 분별하는 의식을 내면화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둘째, 시민들이 깨달음 차원 외에도 실천적 차원에서 정치·사회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따라서 서독의 정치교육은 기존 사회질서에 대한 적응 내지 순응을 의미하는 사회화 교육과는 분명히 구별되었다.

셋째, 법치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시민들이 자기실현을 향한 다양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정치·사회·경제의 모든 측면에서 시민들의 민주화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민주주의 제도와 문화는 인간의 자유로운 자기실현을 보장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며 다양한 가치 및 이익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교육은 민주주의 국가질서 및 사회적 발전과 변화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는 데 큰 비중을 두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및 법치주의를 저해하는 극우와 극좌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과 민족 및 인종주의적 편견을 극복하고 상호관용의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였다.

통일 전 서독의 통일교육은 크게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 두 분야로 나누어져 이루어졌다.

### 학교통일교육

학교통일교육은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회통일교육은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교통일교육은 교육부가 그리고 사회통일교육은 연방정치교육본부를 중심으로 여러 사회교육기관이 담당하였다. 기능과 역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은 전 국민의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동독과 동구권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갖추게 하고, 사회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를 비교하고, 바람직한 통일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통일 전 서독의 학교통일교육은 일반적으로 '정치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사회' 교과에서 다루어졌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주로 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9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12·13학년)까지 '사회' 교과 안에서 통일교육이 다루어졌다. 정치교육은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국제이해교육, 통일교육을 내포하는 개념이었으며, 통일교육은 그 가운데 한 부분으로 다루어졌다. 서독은 학교통일교육의 방향제시 등을 위해 통일교육 기본지침도 제정하였다. 통일교육 기본지침은 교육부에 의한 통일교육과정 기본계획안과 통일교육을 위한 교과서 개발에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학교통일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와 연방정치교육본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개발하고 공유하였다.

### 사회통일교육

통일 전 서독에서는 일반 국민들을 위하여 여러 성인교육기관이 존재하였다. 성인대학(Volkshochschule), 정당 재단, 사설 단체



등 여러 기관에서 성인교육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을 위해서 서독 정부는 별도의 기관을 설치하였다. 대표적인 기관은 연방내무성 산하 '연방정치교육본부', 주 정부 산하 '주 정치교육본부', 연방 내독성 산하 '전독연구소' 등이다. 이와 더불어 정당 산하의 정치재단과 사설 정치교육기관에서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재단들은 공동 사업과 상호 정보교환 등을 통해 협력하며 통일교육을 수행하였다. 서독연방정부는 이러한 정치교육기관들의 행사와 연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였다.

통일 전 서독의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은 간행물 발간, 연수, 교육매체 개발, 각종 대회 개최, 전시회, 교육서비스 등 다양하였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통일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별히 공무원, 학교교원, 언론인, 통일교육 전문요원은 주요 목표 그룹으로 설정되어 이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소득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 사회에 민주주의가 굳건하게 뿌리를 내린 점이다. 정치교육을 통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의 이념을 가르치고 민주적인 사고방식을 함양하도록 할 수 있었다. 서독의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의 효과는 특별히 통일을 전후하여 큰 힘을 발휘하였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통일의 기회를 맞았을 때, 서독 국민 대다수가 통일을 찬성하게 된 것이다. 당시 동서독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격차를 고려한다면, 서독 국민들은 통일이 고통분담과 더불어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올 것임을 예견하였음에도 동서독간 통일과 그로 인한 고통분담을 찬성한 것이다. 통일이 된지 15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동서간의 심리적인 갈등은 존재하지만, 독일 국민들은 통일 문제를 슬기롭게 민주적인 방식으로 풀어가고 있다고 본다.

### 독일 통일교육의 시사점

서독의 통일 전 통일교육은 우리나라 통일교육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통일의 완성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통일과 더불어 의식의 통합이 중요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통일교육이 통일준비교육, 통일과정의 화해협력교육, 통일 이후의 평화공존교육을 포괄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학교통일교육 분야에서는, 통일교육 기본지침의 정립이

시기	사건	내용
69.10.28	Willy Brandt 시장연설 동방정책 발표	1만족 2국가 (동독의 존재인정, 양독관계 특수관계) Kiesinger 부연 '서독정부에 의한 동독의 국제법적 인정은 고려될 수 없으며, 동서독은 서로 외국이 아니다'라고 강조
70.1.22	Brandt, Willy Sloph 동독간교회의 의장에 정관급회담 제안	동독 Erfurt 제 1차 정상회담(3.19) 및 서독 Kassel 제2차 정상회담(5.21) 성사 (성과 없이 종료)
72.12.21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정상적인 선린관계, 분쟁의 평화적 해결, 상호대표부 교환 등 동서독간 기본관계를 규정
81.12.11~13	동·서독 제3차 정상회담	Schmidt 수상 - Honecker 서기장 미·소간 관계악화로 직접적인 안보위협을 느끼고 있던 동·서독은 내독관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정상회담 추진
87.9.7~11	동·서독 제4차 정상회담	서독 Bonn, Kohl 수상 - Honecker 서기장 과학기술·환경·방사선 연구협정 체결, 양독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계기
89.1.15	Leipzig 시위 발생	동독주민, 로자 룩셈부르크 사망 70주년 관련 시위
89.7.17	헝가리 - 오스트리아 국경 개방	
89.8.19~20	난민 증가	9.10 헝가리, 동독 탈출민의 출국 허용
89.10.18	Honecker 사임	에곤 크렌츠가 후임으로 등장
89.11.9	모든 국경 개방	11.10 베를린 장벽 철거시작
89.11.28	콜수상, 유럽과 독일분단 극복을 위한 10개 방안 발표	
89.12.11	라이프찌히 월요일시위에 '독일통일' 구호 등장	
89.12.19~20	동·서독 제5차 정상회담	동독 드레스덴, 콜 수상 - 모드로우 수상 베를린장벽 붕괴에 따른 동서독 통합문제 논의
90.2.10	콜수상, 소련 방문	독일통일 허용
90.2.12~13	동·서독 제6차 정상회담	서독 Bonn, 콜 수상 - 모드로우 수상, 화해동맹 창설 합의
90.3.18	동독, 최초의 인민회의 자유총선 실시	독일동맹 승리
90.5.18	화폐·경제·사회통합(일명 국가조약) 체결	동서독 재무장관/ 동서독 의회, 국가조약 비준(6.22)
90.8.22~23	동독 인민회의, 10월 3일 기본법 제 23조에 따라 독일 연방공화국에 가입할 것을 결의	
90.10.3	독일 통일 선포	



중요하다. 또한 통일교육의 개념을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민족교육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하고, 객관적인 사실전달과 통일 의식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통일교육내용이 편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통일교육 방법들과 자료가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통일교육 분야에서는 독일 '연방정치교육본부'와 유사한 중추 역할을 할 사회통일교육기관이 필요하고, 방송언론인 등 통일교육 연수 대상이 확대되어야 하며,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현재보다 다양화·특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대적이면서도 효과적인 통일교육방법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정진상** 선문대 국제경제학 교수 · 동북아연구소 소장  
현재 한반도학회 회장, 한국독일학회 부회장,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교류분과 위원 등을 맡고 있다

# 통일부 통일교육원 제1기 'UEM' 객원 및 명예기자 모집

'통일교육소식' UEM은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가인 남북한 현실을 평화와 통일의 눈으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우리네 삶 속에서,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의 문화를 통해 우리 현실을 진단하는 당신의 예리한 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                |  |   |
|----------------|--|---|
| <b>모집부문</b>    | 〈객원기자〉 인터뷰 및 스크립트 아트 포터 및 취재촬영<br>〈명예기자〉 일상속 평화와 통일관련 소재 발굴 및 취재   | 〈2차 면접전형〉<br>1차 합격 개별통보 후 추후 면접 전형일 홈페이지 (www.uniedu.co.kr) 공지 및 개별통보   |
| <b>응시자격</b>    | 초·중·고교 재학생 및 교사와 대학생 등 일반인 (성별, 학력, 나이 상관없이 해당부문 관심 있는 자 추천도 가능)   | 〈모집마감〉<br>2005년 7월 20일  |
| <b>전형방법</b>    | 〈1차 서류전형〉<br>공통: 일반서식의 이력서, 자기소개서<br>객원기자: 통일 또는 평화(국내 또는 국제) 관련 칼럼 1건 (200자 원고지 7장 내외)<br>* 아트 포터 및 취재촬영 응시자는 통일 또는 평화 이미지 사진파일 2점 제출<br>명예기자: 평화와 통일 관련 소재 또는 관심영역 기사 (200자 원고지 5장 내외) | 〈접수 및 문의〉<br>assa@khan.co.kr로 'UEM 객원 및 명예기자 응시' 제목으로 전송<br>* 응시 의사가 있는 분들 중 UEM 창간호가 필요하신 분은 위 메일로 받을 주소와 성명,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
| <b>지원 및 혜택</b> |  | 해당부문 활동경력 인정서 발급<br>기자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정의 활동비 지원 및 기념품 제공  |



# EU

## EU를 움직이는 힘은 '조화'였다

한반도 평화정책과 유럽연합의 교훈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심사를 위해 줄을 서는데, 큼직하게 써있는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다. 입국심사대의 줄은 '유럽연합 시민' EU Citizen과 '비유럽연합 시민' Non EU Citizen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한국에도 미국에도 일본에도 공항의 입국장에는 늘 그 나라 '국민'과 '외국인'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영국공항에 '영국인'과 '외국인'이 아닌, '유럽연합 시민'과 '비유럽연합 시민'이라고 적혀있는 것이 새삼 신기했다.

지난 2년간 런던대학에 방문학자로 있으면서, 우연히 대학 등록금이 얼마인지 알아볼 기회가 있었다. 영국대학 수업료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유럽연합 시민은 자국학생 수업료를 내고, 그 외의 국가에서 온 학생들은 외국학생 수업료를 내야 했다. 공항에 이어 학교에서도 사람들은 "유럽연합 시민"과 "그 밖의 시민"으로 구별되어 있었던 것이다.

국가의 형태를 유지하되, 그것을 포괄하는 공동체 안에서 실질적인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이런 종류의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불가능할까? 한번 이런 사회를 자유롭게 상상해보자.

남과 북 사이의 군사분계선이 사라져 사람들은 남북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산가족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나 원하는 곳으로 여행과 이사를 하고, 학교에 다니며

직장을 구할 수 있다. 같은 화폐를 사용하기 때문에 북으로 가기 위해 구태여 돈을 바꿀 필요도 없다. 남한사람이 북에 가서 사업을 할 수 있고, 북한 사람이 남에 와서 일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과정은 개인의 뜻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어떤 법적 행정적 제약도 없다. 이러한 공동체는 현재 유럽연합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경의 구속을 넘어 유럽 내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유럽인들의 모습을 보니, 정작 근대 민족국가 한번 세워보지 못하고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마저 둘로 쪼개져 지금까지 섬에 갇힌 것처럼 살고 있는 우리의 처지가 가여워졌다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에 주목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5년 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남북정상이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 간에 공통점이 있고 앞으로 이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한다"고 천명함에 따라, 새삼 국가연합과 연방제국가 형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유럽연합도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전까지 한반도 통일에 참조할 수 있는 외국의 사례는 주로 독일, 베트남 등에 국한되었었다.

그러나 이런 사례는 한편이 다른 한편을 흡수한 통일이다.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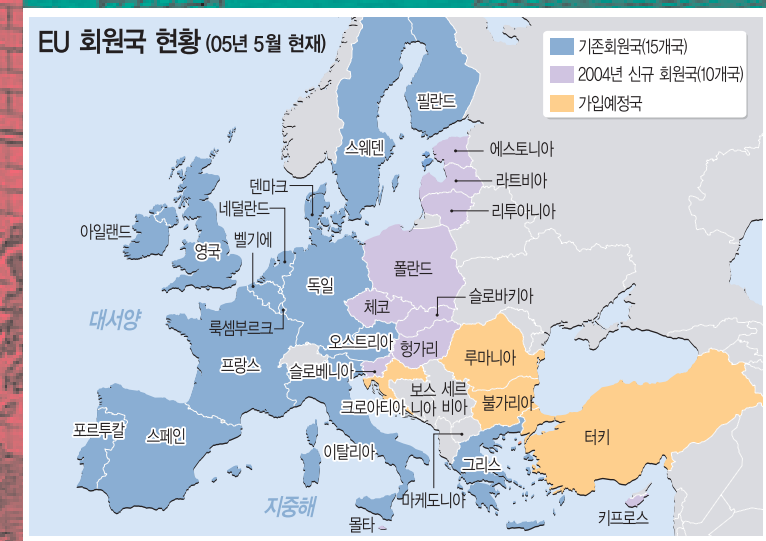
럽연합과 같은 실험은 한편을 다른 한편으로 조멸시키는 통일이 아닌 다른 경우의 가능성도 모색해 볼 수 있게 한다. 즉 통일문제를 곧바로 단일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하지 않고, 화해, 교류 협력, 평화정착, 국가연합, 통일국가라는 일련의 점진적 과정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유럽연합이 정치체제와 경제체제가 동일한 국가들 간의 연합이라는 점에 착목하여 남북한 국가연합단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 논쟁을 염두에 두더라도 유럽연합을 배태한 정신과 철학을 경청하고 그것을 한반도 고유의 실험에 적용하려는 노력은 여전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빛 가지는 우리에게 생각해 볼만한 화두를 제공한다.

첫째, 상호의존성을 제고하여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분쟁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번영을 위한 첫걸음이다. 지난 수세기 동안 유럽대륙에는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20세기에는 두 차례 세계전쟁의 진원지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유럽연합 국가내의 전쟁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이들이 배운 교훈은 평화가 정착되지 않고서는 안락과 번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유럽의 지도자들은 전쟁을 멈출 방안으로, 상대방을 정복하는 것보다 상대방과 협력하여 더 큰 이익을 주는 국가간 체제를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유럽연합은 이런 정신 위에서, 경제공동체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제 분야에서 상호의존성을 높임으로써 지금과 같은 초국가적인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남북경협, 특히 개성공단의 건설은 매우 중요한 시도이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을 결합하여 그 이익을 두 사회가 공유하는 것은 그동안 남북관계를 지배했던 제로섬 원리에서 벗어나 상생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시도가 될 수 있다.

둘째, 남북통일을 장기적이고 점진적이며 사회통합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유럽연합은 공동체 형성의 노력 이후 현재까지 50여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었다. 또한 협력분야도 자원과 경제영역의 협력에서 시작하여 점차 사회, 외교, 안보, 내

- 1951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 6개국 ESCS 창설
- 1957년 ECSC를 유럽경제공동체(EEC)로 확대 창설
- 1973년 덴마크, 영국, 아일랜드 EEC 가입
- 1981년 그리스 EEC 가입
- 1986년 스페인, 포르투갈 EEC 가입
- 1993년 정치, 경제 통합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로 EU 출범
- 1995년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EU 가입
- 1999년 11개 회원국 유로화 사용 개시
- 2002년 EU 12개 회원국에서 기존 화폐 퇴장, 유로화만 통용
- 2004년 5월 1일 중·동구 유럽 10개국 EU 회원 가입
- 2005년 5월 29일 프랑스, 유럽헌법 비준 국민투표(예정)



무, 사법 분야까지 서서히 그 영역을 넓혀나갔다. 이질적인 사회가 공존의 기반을 마련할 때, 단시간에 모든 분야의 통합을 이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가능한 일부부터 서서히 시작하면 그렇게 시작된 일이 다음 단계의 통합의 조건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이질적인 제도를 무리하게 통일하려하기 보다는, 제도적·기술적으로 가능한 영역의 호환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점차 통합의 기초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유럽연합을 움직이는 힘은 '통일' 이라기 보다는 '조화'이다. 이는 남북관계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유럽연합을 보면 만감이 교차한다. 독일은 2차대전 전범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고 통일을 이루어 유럽연합 안에서 번영을 구가하는 반면, 우리는 패전국가의 식민지였던 운명으로 분단된 후 현재까지 남북이 서로의 번영을 가로막고 있다. 더욱이 냉전의 진원지였던 서구에서는 구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조차 유럽연합에 가입하여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반면, 남과 북은 세계 유일의 냉전지역으로 남아있으면서 여전히 제한된 범위에서 불안정한 교류만을 겨우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유럽연합이 꾸준히 실현해 온 평화와 상생, 공동번영은 우리에게도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이다. 그들이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통일교육원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④ (2005. 3)를 참조

**이향규**  
서울대학교에서 교육학 전공. '북한교육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북한교육, 통일교육, 평화교육 분야 관련 강의를 맡고 있다. 2002년부터 2년간 런던대학교 교육대학원에 방문학자로 있으면서 유럽연합에서 사는 그들의 자유를 엿볼 수 있었던 그녀로서는 이 때문에 평화체제가 구축되어 어 러시아 대륙을 마음대로 여행할 날을 꿈꾼다

# 단순지원에서 '남북교류' 매개자로 자리매김



## 1995

년 수해를 겪은 북한의 재난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북한 동포들을 돕기 위해 국내 종교·시민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96년 6월 21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결성했다. 수해와 가뭄,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교역 중단, 서방세계의 경제제재 등 각종 요인들이 겹치면서 북한의 경제난은 매우 극심한 상황까지 진행되었다. 최소 몇 십만에서 최대 몇 백만까지 아사자가 속출한다는 최악의 소식이 국내에 전해지면서, 우리 국민들은 그야말로 '제2의 3·1운동'이라고 할 만큼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북한동포 돕기에 나섰다.

1997년 4월 12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김수환 추기경, 송월주 스님, 강원용 목사, 서영훈 대표 등 우리 사회 원로들의 초청 형식으로 '북한의 식량위기를 염려하는 사회 각계인사 만찬'을 개최함으로써 전 국민적 모금운동에 불을 당겼다. 전 참가자들이 북한동포들의 아픔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옥수수죽으로 식사를 대신하며 북한동포에 나설 것을 호소한 이 행사는 예상외의 큰 호응을 얻어 이후 지속적인 대북 지원 캠페인의 시발점이 된다.

당시 한겨레신문에는 실향민의 성금에서부터 고사리 손으로 모은 저금통까지 연일 북한동포들에게 정성을 전하는 국민들의 이름들이 넘쳐났다.

거대한 물결과도 같은 이 움직임은 97년 IMF 사태로 인해 일순 타격을 입는가 했지만, IMF 극복 이후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다. 97년만큼 폭발적인 참여는 없지만 개인 및 기관 후원자들의 지속적인 후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협회, 단체, 지자체 등에서 예산 편성시 대북 지원 및 남북 교류에 관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과 교류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러한 안정적인 후원에 힘입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그간의 긴급구호 형태에서 벗어나 북한 경제를 근본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농업 복구, 보건으로 체제 개선 등 개발지원으로의 전환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지원 품목 역시 식량, 비료, 농약,



의약품, 의료장비, 안경, 학용품, 교과서, 용지, 미역, 김, 계란 등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96년 창립 이후, 작년 용천역 폭발사고 피해 돕기, 올해 못자리용 비닐 지원에 이르기까지 매년 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동포애와 인도주의에 기반한 전 국민들의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특히 작년 용천역 폭발사고 당시 우리 국민들의 긴급 구호의 손길은 용천 피해 복구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북한 역시 남쪽의 정성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 식량증진을 위한 농업, 축산 복구사업 전개

출발 당시 옥수수, 밀가루 등 식량위주의 지원 활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체적으로 식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농업생산력 복구 사업이 더해지고 있다. 2001년부터 국산 농자재와 기술지원을 통한 북한의 농업생산력 복구사업을 추진, 2002년도에는 평양시 사동구역, 2003년 평안남도 대동군, 2004년 황해남도 신천군에 각각 농기계수리공장을 건설하였다. 농기계 수리공장에는 북한의 주력 농기계인 트랙터 '천리마 28호'의 수리부품 등이 지원되는 한편, 국산 경운기 콤바인 각종 중소형 농기계와 리어카 등이 꾸준히 지원되고 있다. 경운기, 리어카 등 국산 농기계에 대한 북한 농민들의 반응은 매우 좋다. 또한 남측 농법을 적용하는 10헥타르 규모의 시범농장도 운영되고 있다.

북한 경제난의 가장 큰 피해자는 뭉니뭉니해도 어린이들이다. 특히 '고난의 행군' 시절인 90년대 말에 태어나서 자란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는 매우 불량하다.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고단백 영양식을 공급하기 위해 1999년부터 한국대학생선교회와 공동으로 젓염소 농장을 지원해 왔다. 우유를 잘 흡수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소화제 지장이 없는 염소젖을 공급하기 위해서이다. 가공된 염소젖은 우유나 요구르트 형태로 인근 탁아소와 유치원에 배급되고 있다. 이제까지 평양시 상원군 목장, 강동군 구빈리 목장, 황해북도 봉산군 목장의 3개 목장을 집중 지원하였으며, 현재 '봉산 젓염소 종축장'을 복측과 공동운영 중



북한 경제난의 가장 큰 피해자는  
 뭐니뭐니해도 어린이들이다.  
 특히 '고난의 행군' 시절인 90년대 말에  
 태어나서 자란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는  
 매우 불량하다



에 있다. 북에서는 현재 '풀과 고기를 바꾸자'는 구호 아래 축산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 보건의료 지원사업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국내 보건의료인들을 대북지원 사업의 주체로 나서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1998년부터 모색된 대북 보건의료 사업은 마침내 2000년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보건의료협력본부'를 결성으로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학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제약협회, 대한결핵협회 등 국내 보건의료인들로 구성된 여러 협회들은 공동으로 대북 지원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지금까지도 각 분야에서 꾸준한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1년 2월, 똑같은 모양의 모금함이 전국의 병원, 한의원, 약국 등에 동시에 배포되었고, 이를 통해 모금된 금액은 북한 동포들을 위한 의약품 원료 구입에 쓰여졌다. 특이 이 운동은 의약품업 사태로 의료계가 매우 혼란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며, 보건의료인들이 민족문제 앞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준 뜻있는 일로 기억된다.

현재 평양시 낙랑구역 통일거리 정성 제약 연구소 연 4백~5백만병 규모의 수액제 공장 준공식을 눈앞에 두고 있다. 만성화된 경제난으로 북한은 현재 필수 의약품 생산 시설이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완제 의약품이 지원되고 있지만 이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며, 한편으로는 사용법·사용량 등이 달라 혼란을 겪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예를 들면 남쪽 국민들의 경우 평소에 약을 많이 먹기 때문에 한 번에 감기약 두 알을 먹어야 한다면, 북한의 경우 약을 거의 먹지 않았기에 한 알, 혹은 그 이하만 복용해도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북에서는 기왕이면 의약품 원료, 나아가서 자기네 실정에 맞는 약을 생산할 수 있는 제약공장 지원을 요청해 왔다.

모든 의약품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절실한 품목이 수액제(링거액)다. 누군가 아프면 병원에 가고, 병원에 입원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링거액이다. 그런데 이 링거액이 부족하다보니 환자 치료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스로 인한 방북 중단, 겨울철 추운 날씨로 인한 공사 중단 등 2년여의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정성 제약 수액제 공장 건설이 현재 모든 공사를 완료한 상황이다. 건설공사, 설비 장착, 교육, 각종 시행착오 등 이 모든 과정을 남과 북이 공동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남북은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서로간의 신뢰도 돈독해졌다.

또한 조선적십자병원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 '병원 현대화 사업' 역시 본격화 되고 있다. 호담당의사 등을 두며 예방의학에 중점을 두었던 북한의 의료체계는 현재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희귀, 위급, 중병 환자는 평양의 조선적십자병원으로 후송조치 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 22개 전문병원으로 구성된 적십자병원 현대화사업에는 각종 검진, 치료에 필요한 의료장비, 의약품, 백신, 수술도구, 슝, 거즈 등 의료 소모품과 각종 위생시설 등 전반적인 지원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사업 추진 중에는 생각지 않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전기가 충분치 못해 의료장비를 보낼 때 그에 맞는 자동전압조정기, 무전 전원공급장치, 때로는 발전기까지도 보내야 하는 일 등 인프라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기도 한다.

특히나 어린이들에게 반드시 접종해야만 하는 예방백신을 지원하고 싶어도 이를 보관할 냉장설비가 충분치 않아 결국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이런 북한 내 인프라 구축 문제는 민간에서 감당하기엔 너무 규모가 크므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대북지원 운동역사가 이제 10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어느 누구도 북한동포돕기운동이 이토록 오래도록 유지되어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은 그만큼 북한의 경제난이 오래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또한 남한 내 우리 국민들의 동포애가 그만큼 깊고 넓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제 단순한 지원 사업의 영역에서 벗어나 남북 교류의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한발 한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 경색된 남북관계,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국내외 정치상황의 변화 등 복잡하고도 많은 일들이 통일로 가는 길에 놓여있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10년여에 걸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역사는 동포를 향한 사랑과 정성으로 그 어떤 냉전과 불신도 녹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후손들에게 통일을 물려주는 그날까지 우리의 활동은 보다 확대되고 더욱 강화되어 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송경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남북협력사업부장  
 북한의 보건의료 및 아동지원, 여성교류사업 등을 담당하며 '99년 12월 첫 방북 이후 총18회 북녘 땅을 밟은 실무 베테랑. '후대들이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우리 세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일하고있단다

# “여기가 금강산!”

2박 3일 체험학습기



망양대 풍경

**꿈** 만 같았던 2박 3일의 체험학습은 2월 7일에 시작되었다. 아침 8시가 다 되어 떠난 버스는 오후 1시가 되어서야 금강산 콘도에 도착하였다. 아직 북쪽에 도착한 것도 아닌데, 눈앞에 보이는 간판들은 금강산횃집, 금강산식당 등 ‘금강산’ 일색이었다. 금강산관광이 지역 관광산업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들의 경제적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점심 식사를 한 뒤 우리는 관광증과 더불어 몇 장의 서류가 들어있는 목걸이를 받은 뒤 조장(여행기간 조 담당자)으로 부터 버스 안에서 간단한 주의사항을 들었다. 버스 안에 앉아있는 것이 답답하고 따분하게만 느껴질 즈음, 우리는 통일전망대에 도착하였다.

나를 비롯한 400여 명에 이르는 학생들은 남측 출입국관리소를 통과한 뒤 다른 버스로 옮겨 탔다. 나는 속으로 ‘이제부터 나의 금강산 기행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버스는 다시 금강산을 향해 출발하였다. 16년 동안 내가 줄곧 남한에서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통일전망대가 어느새 뒤로 조그맣게 보이고 있었다.

우리는 아직 남쪽에 있었다. 그러나 창문 밖에 펼쳐지는 광경은 너무나도 새로운 것들이었다. 한 순간에 나의 머릿속은 여러 생각으로 가득 차 복잡해졌다. 조장의 말에 따르면 남과 북 사이의 공간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한다. 일단 남쪽의 남방한계선부터 시작하여 중간에는 우리가 흔히 비무장지대라고 부르는 DMZ가 있고 제일 북쪽에는 북방한계선이 있다. 원래 휴전선을 경계로 남과 북으로 각각 2km 거리에 군인들이 있어야 하는게 규정이지만, 남쪽 군인은 복상을 하고 북쪽 군인들은 1.5km 남하해 있다.

내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휴전선의 실상이었다. 그동안 나는 흔히 말하는 38선이 일종의 철조망인 줄만 알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조국을 50여 년 동안 분단시켜 놓은 휴전선은 철조망도 아니고 베를린의 거대한 장벽은 더더욱 아닌, 녹슨 낡은 팻말하나 덩그러니 있을 뿐이었다. 낡은 팻말 하나 때문에 같은 핏줄인 7,000만 인구의 남북 왕래가 좌절되고 있다는 사실은 나에게 허탈감을 주었다.

휴전선은 철조망도 아니고 베를린의 장벽과 같은 거대한 장벽은 더더욱 아닌 녹슨 낡은 팻말에 불과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낡은 팻말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이산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특히 분단의 현실 때문에 50여 년 동안 북측 고향에 가실 수 없었던 외할아버지 생각을 하니 마음이 더욱 아팠다.

나는 어릴 때부터 고향을 그리워하시는 외할아버지의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분단의 고통을 남의 일로만 느낄 수는 없었다. 외할아버지 생각을 하며 창문 밖을 보고 있을 때, 우리는 어느새 북방한계선을 통과, 북측 땅에 와 있었다. 나는 뉴스를 통해서만 볼 수 있었던 북측 땅과 마을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너무나 신기하였다. 마을들은 북측 사상의 영향을 받아 담이 없었다.

그러나 담이 있는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관광객으로부터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만든 것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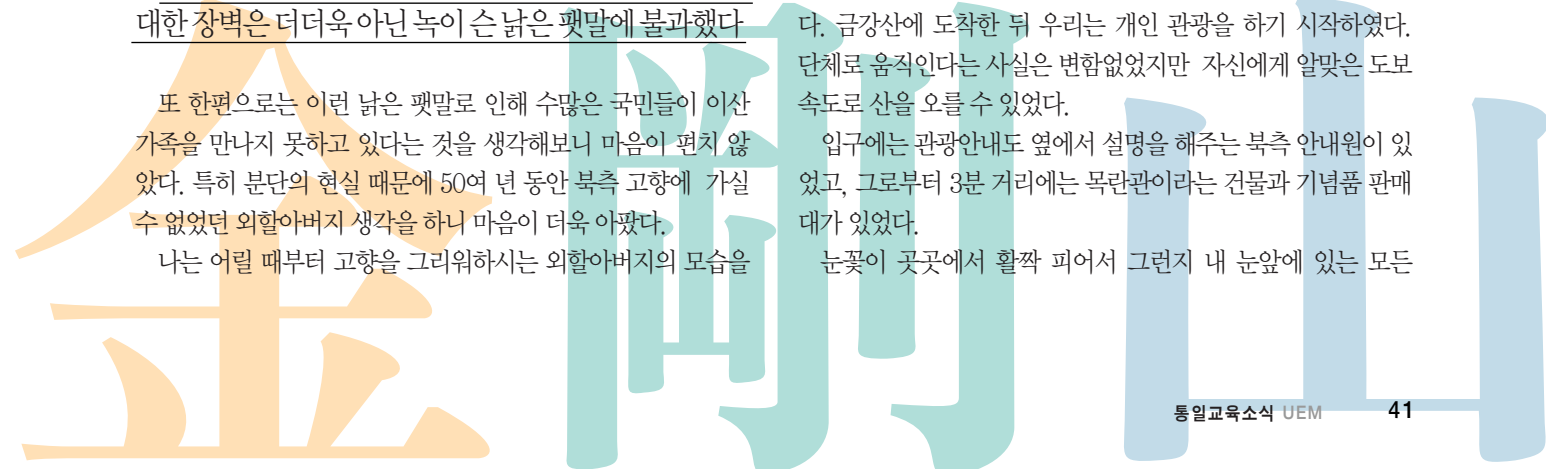
50여 분 뒤, 우리는 북측의 출입국관리소인 CIQ에 도착하였다. 우리는 이 곳에서 남측보다는 까다로운 입국 절차를 밟은 뒤 숙소로 이동하였다. 우리가 2박 3일 동안 묵게 될 숙소의 주변 전경은 환상적이었다. 흰 눈으로 덮인 산 바로 앞에 위치한 숙소의 설정은 ‘드디어 금강산이 있는 이북 땅에 왔다’는 생각이 들게 했다.

둘째 날 일정은 아침 7시에 아침을 먹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나는 친구들과 등산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아침을 든든히 먹은 뒤 버스에 탔다. 모두들 졸려서 그런지 버스 안은 조용했다. 아침부터 눈이 온 덕분에 온 세상이 하얗게 보였다. 그리고 평범하게만 느껴지던 소나무도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이런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카메라 셔터를 실컷 누르고 싶었지만 차량 이동 중에는 사진촬영이 금지 되어 있었다. 그래서 나는 금강산에서 보게 될 더 아름다운 풍경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사진을 찍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밖에 없었다.

지역이 추워서인지 창문 밖으로 보이는 소나무들은, 잔가지가 많고 굵은 남측의 소나무와 달리 잔가지가 별로 없고 곧게 자라 있었다. 조장은 우리에게 이 소나무들이 짙은 모습이 마치 아름다운 미인의 모습과 같다고 해서 미인송이라고 불린다고 했다. 금강산에 도착한 뒤 우리는 개인 관광을 하기 시작하였다. 단체로 움직인다는 사실은 변함없었지만 자신에게 알맞은 도보 속도로 산을 오를 수 있었다.

입구에는 관광안내도 옆에서 설명을 해주는 북측 안내원이 있었고, 그로부터 3분 거리에는 목란관이라는 건물과 기념품 판매대가 있었다.

눈꽃이 곳곳에서 활짝 피어서 그런지 내 눈앞에 있는 모든





삼선암 전경

광경은 아름답고 신비롭게만 느껴졌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그리고 바위 하나하나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듯 하였다. 그래서 평소에 힘들게만 느껴졌던 등산이 하나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다.

북측 안내원은 “조선인으로 태어나 조선인의 긍지를 나타내는 3대 폭포도 못보고 세상을 떠난다면 억울하지 않겠느냐”며 통일이 되면 꼭 3대 폭포 중 하나인 박연폭포에도 가보라고 한다

‘수림미’와 ‘계곡미’ 등 금강산의 10대 美란 말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금강산은 나에게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아낌없이 보여주었다. 그래서 나는 등산을 하며 아름다운 눈꽃과 눈에 덮인 바위 등을 사진에 담을 수 있었고, 아름다운 경치를 마음 속에도 새길 수 있었다.

등산 중에 우리는 무대처럼 평평한 ‘무대바위’, 봉황의 날개처럼 생긴 ‘비봉폭포’, 도마뱀, 코끼리 등의 경주 모습이 새겨진 바위산 등을 볼 수 있었고 정상에서는 ‘구룡연’과 ‘구룡폭포’도 볼 수 있었다.

구룡폭포는 설악산의 대승폭포, 개성의 박연폭포와 함께 우리나라의 3대 폭포로 일컬어진다고 한다. 그 밑에 있는 구룡연은 수심이 13m로 바로 앞에 있는 바위산에 새겨진 한자어의 획의 길이와 같다고 한다. 이름은 아홉 마리의 용이 연못에 산다고 해서 유래된 것이고, 구룡폭포 위에는 상팔담이라 불리는 연못들이 있다. 이 연못들은 ‘선녀와 나무꾼’의 배경이 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구룡연 앞에는 폭포를 볼 수 있는 정자라는 뜻의 ‘관폭정’이 있었다. 그곳에 있는 북측 안내원은 우리에게 조선인으로 태어나 조선인의 긍지를 나타내는 3대 폭포도 못보고 세상을 떠난다면 억울하지 않겠느냐고 물어 왔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 3대 폭포 중 하나인 박연폭포에도 꼭 가보라고 권하였다.

금강산을 오르는 길 중간 중간에는 북측 판매원이 북쪽의 과자를 비롯한 간식거리들을 판매하고 있었다. 그런데 과자포장지 등은 우리나라로 치면 70,80년대의 ‘추억의 과자’와 비슷했으며, 기념품 매대에서 판매하는 기념품 또한 마찬가지였다.(41P 그림)

점심 식사를 한 뒤 우리는 온천 빌리지로 돌아가 온천욕을 즐겼다. 등산을 한 뒤여서 지칠 대로 지친 몸이, 따뜻한 물 속에 들어가니 기분이 상당히 좋았다. 온천욕으로 뭉친 근육을 충분히 풀 뒤 셔틀버스를 타고 모란봉 교예단의 공연을 보기 위해 온정각으로 향했다.

오후 4시 30분에 시작한 공연은 너무나 인상적이었다. 모란봉교예단의 공연은 여성 배우들의 유연함, 남성 배우들의 체력

### 금강산 체험학습 프로그램

- 기간 : 04.12.1~05.2.27
- 인원 : 45회 총 1만9,358명 (교사, 학생 등)
- 투입재원 : 40억원  
(남북협력기금 중 주민왕래지원자금 30억, 교육부 10억)
- 필수 관광경비 중 기본경비 전액 정부 지원(17만원)  
기타 교통비, 공연비, 식비는 개인부담(9~10만원)
- 선발기준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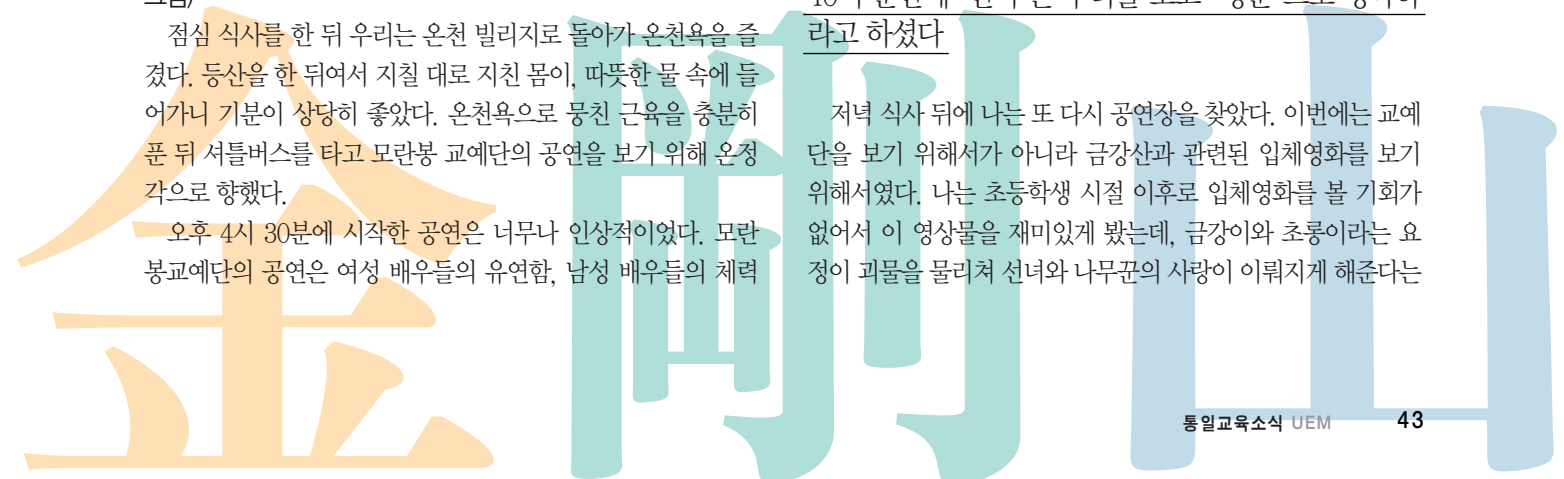
구분	선발기준/방법	인원
	<b>직접선발</b>	
	도전통일벨 우수 성적자	1,000명
	KBS 도전골든벨 (왕중왕 출연 110명)	400명
	EBS장학퀴즈 등	300명
	<b>기준제시</b>	
	이북도민 2,3세 출신	1,850명
	소년/소녀 가장	1,850명
	고3	3,700명
	통일교육 시범중 · 고등학교 학생	860명
	시도별 학생수를 고려, 교육청별로 배정	8,530명
	- 근로 · 선행 · 효행 표창자, 사회봉사우수자 등 (학교장 추천)	
합계		18,490명

과 근력, 그리고 각 배우의 개성과 재치가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예술작품이었다.

아찔한 장면 앞에서 나는 긴장을 늦출 수 없었고, 배우들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공연은 멋지게 끝났고, 나는 그들의 멋진 공연에 박수로 보답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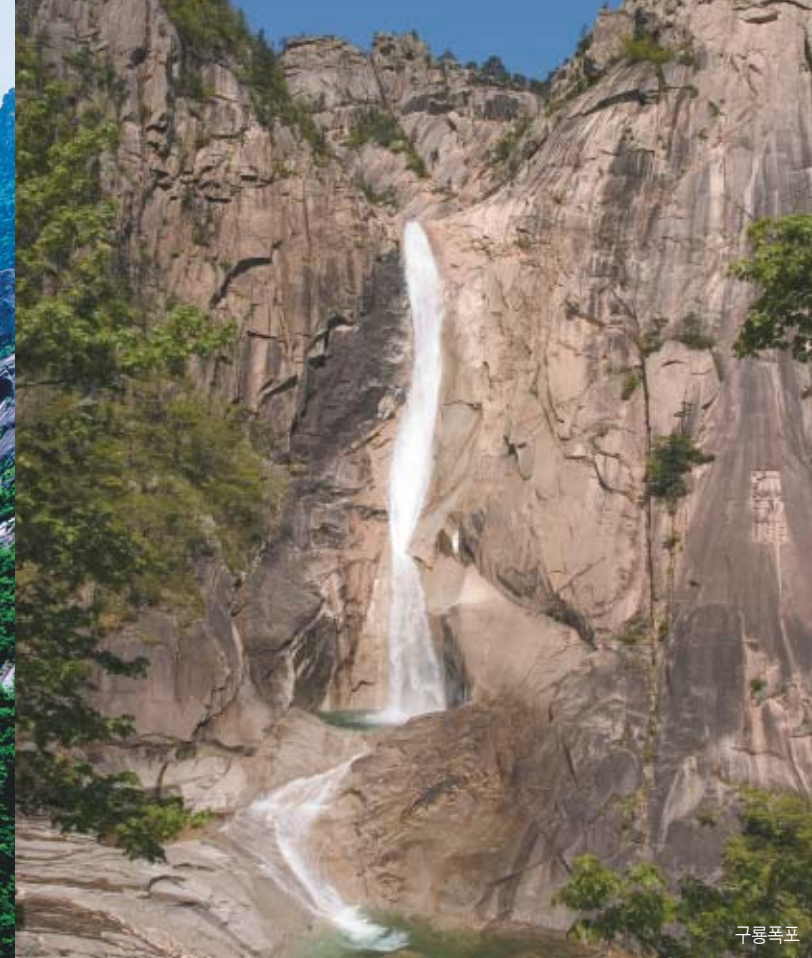
본인은 건너오는데 20여 년이나 걸린 휴전선을 불과 40여 분만에 건너 온 우리를 보고 ‘행운’으로 생각하라고 하셨다

저녁 식사 뒤에 나는 또 다시 공연장을 찾았다. 이번에는 교예단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금강산과 관련된 입체영화를 보기 위해서였다. 나는 초등학교 시절 이후로 입체영화를 볼 기회가 없어서 이 영상물을 재미있게 봤는데, 금강이와 초롱이라는 요정이 괴물을 물리쳐 선녀와 나무꾼의 사랑이 이뤄지게 해준다는





집선봉 전경



구룡폭포

## 금강산 체험학습 참가자 대상 여론조사

### 1. 조사개요

- 조사대상 : 체험학습 참가 중 · 고교생 및 인솔교사(2,150명)
- 조사일시 : 2005.2.15~25
- 조사방법 : 전수 유치조사 (출발 전 사전조사 및 복귀 후 조사)
- 조사기관 : 리서치 & 리서치

### 2. 주요내용 및 분석

- 금강산 체험학습 이후 학생들의 대북인식 및 북한주민에 대한 수용도가 우호적이고 통일 지향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남.
  - 북한을 '포용해야 할 동포'로 인식 58.4% (26.1% 상승)
  - 통일 희망 87.3% (9% 증가)
  - 북한에 대한 위협감 체감도 43.3% (9.4% 하락)

#### < 학생 >

- 대북인식 및 통일관이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 73.7%
- 기존교육보다 교육효과 우수 74.5%
- 통일교육 특강프로그램이 효과적 65.8%

#### < 교사 >

- 통일교육에 도움 99.2%
- 학생 통일의식 형성에 도움 98.5%
- 정부지원 바람직 91.7%
- 통일교육특강이 효과적 86.5%

- 다만, 현지 북한주민과의 접촉기회가 적어서 아쉽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교사들의 경우 북한현실에 대한 정보부족을 통일교육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

- 체험학습의 아쉬운 점 : 제한된 곳만 다닐 수 있음 53.4%
- 북한주민 접촉 적음 28.6%
- 교육 애로사항 : 북한현실에 대한 정보 부족 45.1%

- 위 여론조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금강산 체험학습이 청소년들의 통일교육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지원사업의 지속적 확대 필요

최원호 서울대치중학교



내용이다.

입체영화가 끝나자마자 같은 장소에서 통일교육이 시작되었다. 교육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첫째로 김윤규 사장이 금강산 관광산업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다. 그 분은 우리에게 본인은 건너오는데 20여 년이나 걸린 휴전선을 불과 40여 분만에 건너 온 것을 행운으로 생각하라고 하셨다.

그 뒤를 이어 이운수 총소장님으로부터 실질적인 통일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평소에 통일에 대해 생각하고 계셔서 그런지 그분의 강연은 너무나도 인상적이었고 마음에 와 닿는 말씀만 하셨다.

그 분은 우리가 타고 온 버스를 타임머신처럼 생각하라고 하셨다. 우리가 디지털 시대의 남한으로부터 아날로그 시대의 북한으로 40여 년을 거슬러 온 것이라고 생각하라고 하셨다. 우리가 지금은 기피하는 3D 업종조차도 북쪽에선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북쪽의 노동력에 남쪽의 자본과 기술을 합칠 수 있다면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어 세계 어느나라와도 경쟁을 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되며,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통일은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오시영 선생님이 본인의 경험을 예로 든 인간적인 측면에서 통일의 중요성을 말씀해주시는 것으로 강연은 모두 끝났다.

포대가 배치되어 있어 사진촬영을 제한한다. 나는 우리나라가 아직 '전쟁 중'이라는 안타까운 사실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둘째 날과 마찬가지로 셋째 날도 7시에 아침을 먹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아침 식사 후 우리는 차를 타고 해금강을 향해 출발하였다. 구룡연 코스와는 달리 해금강에 가는 길에는 여러 군인들이 보초를 서고 있었다. 나는 군인들이 왜 관광지를 지키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은 해금강이 민간인 통제구역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해금강은 마치 바다에 금강산을 옮겨 놓은 듯 하다는 뜻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곳곳에서 우리는 웅장한 바위가 드넓은 바다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금강산과 마찬가지로 바위산이 있었지만, 그 느낌은 사뭇 달랐다.

금강산은 눈에 덮인 바위가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한 반면, 파도가 치는 해금강에 있는 바위는 웅장하고 힘이 있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데 해금강이 금강산과 다른점이 하나 더 있었다. 그것은 사진촬영을 제한하는 구역이 있다는 것. 알고 보니 그 방향으로 포대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가 아직 전쟁 중이라는 안타까운 사실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우리는 해금강을 빠져나와 삼일포로 향했다. '삼일포'란 지명은 옛날 임금이 전국을 돌며 한 곳에서 하루씩만 머물던 것을 이



# 세월, 그리고 두 아내



조영훈 방송작가·소설가  
 제18회 월간문학 신인상 희곡 '문밖에서' 당선, 문화방송 개국 기념 드라마 공모 라디오연속극 부문 '파란낙엽' 당선  
 월간 '학원' 기자, 월간 '소설 주니어' 편집장,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 역임  
 펴낸 책으로는 '열한 번째의 사랑', '도시의 새', '춧불놀이', '모든 악기는 소리를 낸다', '초록일기', '소설 이항복', '초록정거장' 등이 있음

버스에서 내리자 멍하리였다. 앞으로는 청천강 줄기가 뱀처럼 길게 흐르고 있고  
 예순 두 해만에 대하는 고향 마을이 거기 있었다.

기차 몇 번, 버스 몇 번만 타도 몇 시간이면 와 닿는 고향.

그 고향을 예순 두해나 찾지 못하다가 살아 생전에 가까스로 다시 밟게 됐다는 감회로 노인은 어질어질  
 현기증을 느꼈다. 구름 위라도 걷듯 발과 몸이 헛 놀았다. 옆에서 아들이 급히 부축했다.

노인이 손을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말과 함께 노인은 걸음을 내디뎠다.

불안하게 아들이 물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버님.”

“기림. 괜찮지. 내가 금방 어케 되네. 예까지 다 와서리.”

“그래도 아버님...”

“괜찮다는데도 기러는구나. 괜찮아.”

아버지와 아들은 그렇게 마을 어귀로 들어섰다.

마을 앞으로 굽어져 흐르는 청천강이며 병풍처럼 에워싼 뒷산 자락은

예순 두해 전 떠나던 때의 모습 그대로였으나 마을의 모습은 어쩐지 처음 보는

고장인 양 낯이 설었다.

낯이 선 것은 비단 노인만이 아닐 터였다. 고향 마을 또한 나를 낯설어 하지 않을까. 스물 두 살 청년이  
 어언 여든 넷의 노인이 되어 사그라질 듯 다시 나타났으니.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래. 너무도 오랜 세월이 흘렀어. 스물 두 살 그 풋풋하던 청년이 이렇듯  
 호호백발 늙은이가 됐으니. 그나저나 우리 집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아버님 어머니는 연세가 있으니  
 돌아가셔서 아니 계실 테구... 아내 금순이... 금순이도 이제 우리 집에는 살고 있지 않겠지. 그 동안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시집을 가도 수백 번은 더 갔을 시간이 흘렀으니...’

헛일 삼아 나선 걸음이였다. 고향 마을을 찾아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 아버지 어머니 기일이나 알아내고  
 산소에 들러 한잔 술이라도 올리고 용서를 빌고 돌아갈 생각이였다. 60년이 넘게 찾아뵙지 못한  
 불효에 대해 살아서 마지막으로 용서를 빌고 싶었다.





생각과는 달리 마을이 가까워 오면서 노인은 전혀 가망 없는 희망을 품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어쩌면 아내 금순이가 집에서 기다릴지도 모른다는 생각. 60년이 넘는 세월을 오로지 자신만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노인은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다.

안될 말이었다. 스물 하나에 혼자가 돼서 어찌 기약도 없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를 남편을 기다릴 수 있단 말인가. 자신조차 남에 내려가서 십수 년을 채 못 기다리고 서른 아홉이 되던 해에 마침내 새로이 장가를 들었거늘.

결혼한 지 두 달. 한 마을에서 같이 자라 그렇게 결혼이라는 인연을 맺고 두 달 만에 헤어진 아내였다.

노인은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예순 두해 전 자신이 살던 집을 어림잡아 찾기 시작했다.

**변해도 너무 변해 있었다.** 예전에 집이 있었다 싶은 곳은 밭이 되거나 나무가 서 있고, 나무가 있거나 숲이었다 싶은 곳에는 오밀조밀 집이 늘어서 있었다. 그러나 거개가 빈집이었다.

여기저기 문짝이 떨어져 있고 가재도구들이 나뒹구는 빈집, 빈집들의 행렬.

노인이 아들을 돌아보았다.

“생각보다 빈집들이 많은 것 같구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보다 빈집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기래, 휴전선이 터지던 날부터 북쪽에서 사람들이 꾸역꾸역 남으로 밀려 내려왔으니 와 안

기렇겠네. 길티만 어카겠네.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남쪽보다 못하게 살았으니까니 통일된 조국에서 잘 살아보겠다고들 살길 찾아 떠나는 걸 무슨 수로 막아...”

남북이 통일이 되어 휴전선이 무너지고 인구 대이동이 시작되면서 남에서 북으로 이동하는 사람 수보다 북에서 남으로 밀려 내려오는 사람들의 수가 너무 많다보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상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받았다.

“그래도 통일정부에서 이런 현상이 있을 걸 미리 예측하고 대처하고 있다니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행히 주저지



중심으로 호적체계도 새로이 구축이 돼서 혼란도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구요. 독일에서도 통일이 됐을 때 서독의 인구가 두 배나 늘어 골머리를 앓았는데 동독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래, 기래. 육십년이 훨씬 넘게 떨어져 살다가 한꺼번에 만나 같이 살게 되는 건데 그깟 혼란쯤 뭘 대수네.”

부자가 부지런히 걸음을 재촉하는데 저만치 소녀 하나가 다가왔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낯이 익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

아들이 소녀를 불러 세웠다.

“애, 너 이 마을에 사니?”

“예, 기린데요.”

“그래? 그럼 뭐 좀 하나 물어보자. 너 이 마을에 혹시 허금순이라고... 허씨 성을 쓰고 사시는 할머니가 계실 텐데 어디 사시는지 아니?”

“허...금순이요?”

“응, 기래. 올해 아든 셋 된 할머니네 모르겠네?”

참지 못하고 노인이 끼어들었다.

“허금순이면...”

소녀가 반짝 눈을 빛냈다.

“우리 증조할머니 이름이 허금순인데...”

**“뭐야, 증조할머니?”**

얘기를 들어보니 꿈속에조차 잊지 못하던 금순이의 증손녀였다. 증손녀. 그렇다면 어떻게 된 일인가.

내가 떠날 때 아내는 분명 홀몸이었는데 그럼 그 동안에 새로 시집을 갖고 거기서 아이를 낳아 증손주까지 보았다는 얘기가 아닌가.

노인은 스프르 맥이 풀려 옴을 느꼈다. 오오, 이럴 수가...

그러나 그 생각이 기우였음은 곧 밝혀졌다.

집으로 향하며 소녀가 털어놓은 사연은 대강 이러했다.

- 예전에 살던 집은 6·25 전쟁으로 불 타 없어지고 인근에 새로 집을 지어 살았는데 증조할머니는 증조할아버지가 남한으로 떠난 뒤 아들을 낳았다. 그 뒤 아들을 키우며 통일이 되어 남으로 간



증조할아버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살았는데 그 아들이 자라 아들 둘을 낳고 그 아들이 자라 다시 어른이 되었는데도 통일의 날은 오지 않아 애를 태우는데 이제 증조할머니가 세상을 떠날 나이가 되어서야 통일이 되었으나 남으로 간 증조할아버지는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

노인이 물었다.

“기래 증조할머니는 아직 건강하시네?”

“아니요...”

소녀가 말끝을 흐렸다.

증조할머니는 지금 앓아누워 계시다고 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러니까 노인이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오래 전에 이런 저런 병으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세상을 떴고 손자가 둘인데 같은 마을에 살다가 이번에 통일이 되어 살 자리를 찾아 남으로 떠나며 증조할머니만이 어린 증손녀의 보살핌을 받으며 집을 지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소녀는 바로 큰 손자의 딸이었다. 올해 열 일곱 살.

북의 아내 금순 할멈의 병세는 생각보다 깊었다. 깊기만 한 게 아니라 위중했다.

노인이 도착해서 머리맡에 앉아 눈물을 쏟아 놓자 그렇그렇 올려다보며 더듬더듬 웅얼거렸다.

“오셨시오. 좀 늦으셨구만요.”

“좀 늦기만 했네. 벌써 예순 두해나 흘렀는걸. 이보라우. 와 이렇게 늙었네. 그 곱던 얼굴이 와 이렇게 늙었어. **이보라우. 날 용서하라우. 용서하라우...**”

할멈은 곧 혼수상태에 빠져들었고 그 밤 노인은 혼자

예순 두해나 버려두었던 옛 아내의 병석을 지켰다.

참혹했다.

예순 두해만의 해후의 자리가 이렇듯 답답한

자리라니. 그 동안 쌓인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그 밤 소쩍새가 울었다.

노인은 잠시 남에 두고 온 아내 생각을 했다.

어제 밤이었다.

예순 두해만의 귀향을 앞두고 노인이 좀체 잠을 이룰

수 없어 뒤척이는데 아내가 말했다.

“영감 뜻대로 하세요. 못 돌아오셔도 상관없어요.”

“못 돌아오다니.”



“형님이 살아계시면 말이에요. 시집도 다시 안 가고 수절하면서 평생을 영감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요.”

“쓸데없는 소리. 미리부터 기탄 생각은 와 하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개지구서리.”

“그래두요. 형님이 아직도 북에 살아 계시다면 말이에요.”

형님. 언젠가부터 아내는 북의 아내를 형님이라 불렀다.

형님이라는 말 속에는 북의 아내에 대한 연민과 함께 미안함이 배어 있다. 남의 남편을 40년이 넘게 차치하고 있다는 미안함과 죄책감.

남쪽의 아내와 재혼을 한 것은 노인의 나이 39세 때였다. 스물

둘에 서울에 있는 삼촌을 찾아와 남한에 정착할 것을 의논하고

돌아가던 중 38선의 경계가 삼엄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이어 한국전쟁을 맞으며 분단이 고착화 되자 뜻하지 않게 이산의 명애가 씩씩지며 굴곡의 삶을 산 지 어느 덧 예순 두해였다.

아내가 말했다.

“**영감 뜻대로 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상관없으니까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지 형님께서도 기다렸던 세월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글쎄, 그 얘기는 그만 하라니까니 기래. 그 사람이 아직 살아 있는지도 모르고...”

다시 소쩍새가 울었다.

북의 아내 금순이 더듬더듬 다시 몇 마디 더 토해냈다.

“됐시오. 이렇게 당신을 보았으니까니... 이제 죽어도 한은 없시요. 됐시오.” 그리고 그만이었다.

꺼질 듯 꺼질 듯 이어지던 촛불이 마침내 그 정점에서 명을 다하듯, 거짓말 같게도 금순은 곧 가쁜 숨을 몰아쉬다가 눈을 감았다.

운명을 한 것이었다.

사흘 후, 장례를 마치자 아들은 노인을 두고 혼자 남으로 떠났다. 떠나는 아들의 뒤에 대고 노인이 외쳤다.

“가서 오마니한테 전하라우. 내레 여기서 큰오마니하구 재미나게 한번 살아 보겠다... 기래서 남았다구 말이야. 기렇게 꼭...알간?”



## 2005년 학교 통일교육발전 워크숍

- 주제 : 학교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향과 교수법
- 일시 : 2005년 4월~10월(해당지역 교육청과 협의, 추후 확정)
- 장소 : 대구(1차, 4.15기 시행), 제주(2차), 충북(3차), 대전(4차), 울산(5차)
- 참석자 : 해당 교육청 통일담당 장학관, 통일교육 담당교사 등

통일교육원에서는 통일·북한문제 전문가 및 통일교육 담당교사와의 워크숍을 통해 바람직한 학교 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 기법 등을 모색하는 '통일교육 발전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 총5차로 진행될 워크숍에서는 학교 통일교육의 발전방향 및 지도교사들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수법 등을 제시하고, 워크숍에서 제기된 각종 건의사항은 통일교육 정책 및 지침 재정립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4월 15일 대구에서 있었던 제1차 워크숍에서는 통일교육의 시간부족과 실제 교내행사나 조희시간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도덕 과목 지도시기가 대부분 학년말에 몰려있어 수업 부실화가 염려된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제기된 개선방안으로는 강의위주 교육을 멀티미디어 자료, 북한 TV·드라마 등 다양한 학습자료를 활용하는 방법모색과 민족공동체 의식 형성 및 구축을 위한 민족교재의 조속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 등이 있었다. 특히 일선 교사의 대다수는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통일외지를 함양하는 데에는 현장체험학습(금강산, 개성공단 등)과 남북학생 교류기회 확대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이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2005년 제1차 학교 통일교육발전워크숍 (4월 15일 · 대구)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주제발표자	이중훈	춘천교대 윤리교육과 교수
토론자	박종범	대구다사초등학교 교사
토론자	이중순	구지중학교 교사
토론자	김봉준	달성고등학교 교사
사회자	강석승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과장



### 초등학교 순회 평화교육

사단법인 '남북어린이어깨동무'는 지난 1999년부터 교실 안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놀며 배울 수 있는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다.

현재 어깨동무 '얼음이' 대학생 언니와 형들이 학교를 직접 방문, 북한 어린이들의 생활과 문화를 알리고 그들과 친구가 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 신청기간 : 2005년 9월 30일 까지
- 교육가능 기간 :  
1학기(3, 4월은 기 원료, 5월 7/14/21/28일)  
2학기(9월 3/10/17/24일, 10월 22/29일, 11월 5/12/19/26일, 12월 3/24일)
- 문의신청 : (02)743-7941~2
- http://okedongmu.or.kr



### 찾아가는 통일교육

통일교육문화원은 2003년 12월 통일교육 분야의 공로로 통일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단체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선 각 학교의 통일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온라인 사

이버 통일교육과정 외에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주요 교육 프로그램
- ① CA반 통일반 운영
- ② 방문(수업별) 통일교육
- ③ 놀이를 통한 통일교육
- ④ 분단현장체험, 금강산 통일여행
- 신청문의 : (02)741-8411
- http://www.tongiledu.or.kr



### 통일교육 담당자 심화교육 안내

통일교육협의회 청소년분과위원회에서는 통일교육 실무자들의 통일이식 고양 및 자질향상을 위해 청소년 통일교육 담당자 대상 심화교육 연수과정을 개최한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이수증이 발급되며, 참가신청은 이메일 또는 팩스로도 접수 가능하다.

- 일시 : 1차·2차 연수는 기 원료, 3차 연수 5월말 1박2일
- 문의신청 : (02)784-5615
- 접수처 : tongiledu@tongiledu.org 또는 팩스 (02)7853-615
- http://www.tongiledu.org



# 6·15 이후 남북 청소년들의 통일인식 제고를 위한 제언

6·15 정상회담의 5주년을 맞이하면서 남북 청소년의 통일이식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 동안 남과 북에서 '6·15'는 어떻게 해석되고 있으며, 교육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끼쳐왔을까? 적어도 학교 현장에서는 '6·15' 이후 통일교육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으며, 청소년들의 통일이식 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관심에 근접한 전문적인 연구나 설문조사 결과를 찾기가 그리 쉽지 않다. 간헐적으로 실시되는 청소년 대상 통일이식 설문조사에도 대부분 통일관, 대북관의 변화 추이와 통일교육의 만족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뿐이다. 5주년을 맞는 6·15와 관련, 남과 북의 시각으로 바라본 '6·15 이후 남·북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 “남조선을 대한민국이라고 하나요?”

북쪽 청소년·주민들의 인식변화

“남조선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나요?” 이 말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 ‘6·15 공동선언문’을 보고 묻은 옆집 중학생의 질문이었다.

물어볼 만도 하였다. ‘남북정상회담’ 전에는 북한사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찾아 볼 수 없는 것은 물론, 한국전쟁을 묘사한 영화에서도 태극기나 국호사용에 대한 내용은 없었으며, 남한은 오직 ‘남조선’이라고만 불리고 있었다. 당연히 지금의 북한 청소년들도 남한의 애국가나 국화는 모른다.

‘6·15 정상회담’은 북한의 청소년들이나 주민들에게 이제껏 어렵פות이 경제발전 수준이 어떻다는 등으로 이야기하던 남한에 대해 새로운 관심과 흥미를 유발한 계기가 되었다

북한 당국은 ‘6·15 정상회담’을 계기로 청소년들을 포함, 북한주민들의 의식교육에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갔다. 언론에서는 ‘6·15 정상회담’이 남북 화해의 발판이 되었다는 식의 평가보다는 ‘위대하신 장군님의 노력이 낳은 산물’로 선전하기에 바빴다. 여기에 사망전 김일성 주석의 뒷이야기까지 곁들이면서 눈물 없는 들을 수 없는 장면들을 연출해내고 있었다.

그 뒷이야기란, 김 주석이 사망 직전 서명한 문건이 ‘조국통일 문건’이었는데 ‘한 평생을 오로지 미제의 발굽 밑에 신음하는 남녘 동포들을 해방시켜 주려고 애쓰시다 오늘 이 순간을 보지도 못하시고 고생만 하다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방과 후 진행되는 학교강연회와 방송을 통한 선전도 강화하였다. 북한은 전력사정이 좋지 않아 방송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발동발전기에 의한 전력보충대책까지 세워가며 정상회담 전 과정에 대한 선전방송을 연일 해나갔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북한 청소년들과 주민들 눈에 비친 ‘6·15 정상회담’ 모습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 첫번째로 ‘군사 깡패정권이 살 판친다’고 하는 남한의 현실에 대해 다르게 생각할 여지를 갖게 한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납치사건 및 민주인사로서 김대중 대통령을 잘 알고 있다. 그러한 민주인사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남한 정권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



게 된 것이다.

둘째로 ‘6·15 정상회담’으로 북한 청소년들과 주민들은 북한 정권의 대남선전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북한 당국은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 정권’이며, ‘오직 미국의 승인하에서만 움직이는 정권’이기 때문에 ‘함께 손잡을 수 없는 정권’이라고 선전해왔다. 그런데 그런 선전과는 달리 미국의 개입 없이도 남한 당국과의 공동회담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북한 당국의 선전의도와는 다르게 남한을 인식하고 있었다. 남한의 이기적인 사회를 보여주려고 제작했던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홍영자 편)’을 본 북한주민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애창곡을 따라 부르는가 하면, 청소년들 사이에 선 남한의 가요를 모방한 노래나 춤들이 유행을 하기도 했다.

2000년 ‘6·15 정상회담’의 결과로 맺어진 공동 합의문은 ‘역사적’ 사건이지만 정상회담이 열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의 청년학생들과 주민들에게 민족화해의 의식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한 계기가 되었다. ‘6·15 정상회담’을 통한 실질적 만남을 통해 남북 관계는 서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차원으로 격상되었고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을 통한 휴전선 개방을 낳았다. ③

김영희 2002년 8월 탈북, 현재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간사로 재직 중

# “우리는 금강산으로 놀러 간다”

교류협력 시대 남쪽 청소년들의 6·15 실천안

‘6·15 정상회담’은 정치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발전적인 통일논의를 열어놓았다. 그렇지만 북·미관계의 악화와 북핵문제로 인한 갈등, 이로 인한 남북관계의 경색과 남남갈등으로 인하여 국민들로부터 남북관계의 긍정적인 측면들이 점차로 소외되고 있는 듯하다. 또한 우리는 통일에 대해 국민적 차원의 합의를 이루지 못해 학교 안에서건 밖에서건 ‘6·15 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성명’에 대해 당시의 국민적 열정과 관심이 지속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런 가운데에서도 ‘6·15 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와 협력이 진전됨에 따라 금강산 체험학습 같은, 학교 밖에서 직접 통일을 체험하는 문화행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기존의 ‘주어지는’ 통일교육이 아니라, ‘발로 찾아다니는’, ‘참여하여 만들어 나가고 직접 해결해나가는’ 방식으로 통일교육에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재미있고 딱딱한 학교통일교육으로는 청소년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도, 최근의 변화된 남북관계를 이해시킬 수도 없기 때문이다.

최근 통일부에서 실시한 바 있는 청소년 대상의 ‘금강산 체험학습’은 이런 의미에서 무척 고무적이다.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 ‘북핵, 기아, 탈북’ 등의 이야기가 떠돌아도 한번도 자기랑 가깝다고



느낀 적이 없던 곳’, ‘약속을 잘 어기고, 이득은 챙기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이 사는 곳’, ‘배고프고 추운데도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알던 학생들에게, ‘나와 말이 통하고 생김새가 비슷한’, ‘가장 멀게 느껴졌던 이방인이 가장 가까운 친구’처럼 와닿게 해준 계기를 만들어 준 셈이다.

그로인해 우리 학생들은 그들의 안타까운 현실에 눈가를 적셨고 그들의 국토사랑과 문화사랑에 감동을 받았으며, 금강산 체험학습이 “12년의 교육과정을 마치는 지금, 가장 훌륭한 통일교육”이었다고 말한다. 이렇게 만지고, 이야기하고, 보고 나면 청소년들은 굳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남북정상회담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를, 금강산관광은 작지만 큰 시작이라는 것을, 개성공단이나 통일을 앞당기는 커다란 성과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

가르치는 선생님에게나 배우는 학생들에게 아직 ‘6·15 정상회담’은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 그러나 금강산 체험을 비롯하여 지역의 통일문화한마당, 도보순례, 통일캠프, 각종 공모전, 용천 피해 돕기 같은 북녘 어린이 지원 등에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체험하는 학습의 과정을 통해, 말뿐인 통일이 아니라 조금씩 그들의 ‘6·15 정상회담’의 실천이 나타나고 있다.

‘6·15 공동선언’의 제4항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다’의 조항을 실제 보여주듯이, 앞으로는 비정치적이고 순수한 남북 청소년 방문과 교류부터 차츰 풀어 나가는 것이 ‘6·15 정신’을 실현하는 또 하나의 접근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처럼 제한된 곳만 다니고 주민 접촉을 할 수 없는 금강산 관광의 애로상황을 고려해보면 금강산 체험학습에서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역시 강구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접근을 통한 북의 변화’만을 요구하는 기능주의적 접근에 의한 통일교육의 한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금강산을 오가며 애정 없이 북을 바라보면 편견이 더 굳어질 수가 있듯이,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도 변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수렴을 통한 접근’과 체험을 늘리고 참여하면서 ‘변화가 있는’ transformative 통일 학습과 통일 연습을 가능케 하는 통일교육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④

정용민 휘경공고 교사, 본 소식이 편집위원·서울초중등학교 통일교육연구회 회장

금강산 근무 '현대아산' 직원 눈에 비친 금강산관광 7년차

# 지금도 '변화하는', '변화될' 미래의 모습들

1998년 11월, 금강산을 향한 첫 바닷길을 열어준 '금강호'의 출항을 시발점으로 하여 2005년 5월 현재 금강산관광은 7년차를 맞이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10시간 이상이 걸려서야 밟을 수 있었던 북측 땅을 2003년 육로 관광이 본격화 되면서 비무장지대를 통과하여 불과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관광 형태 역시, 처음에 3박 4일 일정으로 시작, 2박 3일, 1박 2일, 그리고 당일관광 등 다양한 형태로 탈바꿈하면서 많은 변화를 시도해 왔다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이래 가장 큰 변화는 남과 북이 매우 가까워졌다는 것이다. '관광'이라는 이름 하에 50여 년 닫혀 있던 군사분계선을 직접 넘어 북측에 들어오게 되었고, 책에서만 보고 이야기로만 듣던 금강산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북측의 문화를 알게 되고 북측 사람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도 서로 알아 나가는 단계이고 이해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소원했던 사이가 가까워진 것만은 명백한 사실이다.

처음에 금강산관광이 시작되었을 당시, 북측에서는 현대가 관광객을 '동원' 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일 들어오는 관광객들은 그저 순수하게 '관광'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금강산지역이 군사 지역이라 이 곳 금강산에서는 심심치 않게 북측 군인들을 만날 수 있다. 관광 초기에 북측 군인들은 관광객들을 비롯한 남측 사람들을 매우 적대감 있는 눈빛으로 바라보기 일쑤였지만, 관광 7년차를 맞이하는 지금, 그들의 눈에는 적

대감보다는 편안함과 호기심이 어려 있다.

친구도 자주 만나 대화해야 더욱 친해지듯이, 매일 보고 부대끼고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얼어붙었던 마음도 서서히 녹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단 시간에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시간이 걸리고 앞으로도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북측이, 그리고 우리도 '변화' 하고 있다는 것이다.

## '하지마 관광'에서 자유로운 관광으로

관광 초기에는 금강산관광을 '하지마 관광'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제재가 많았다. 소지품에서부터 언행, 사진촬영, 통행검사 등 제한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정해진 곳 이외에는 자율적으로 돌아다니지도 못했다. 심지어 어느 구간을 통과할 때마다 북측 군인에게 일일이 차량에 탑승한 인원수를 보고 해야 할 정도였다. 10시 이후에는 통행금지로 숙소에만 있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자율통행도 가능하며, 인원 보고를 할 필요도 없다.

저녁에 산책을 즐기는 관광객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예전같

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일상이 되었다. 산에서 만나는 북측 환경 관리원들과도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하다. 일부 정치적인 이야기만 피한다면 남과 북에 관한 이야기, 문화, 심지어는 연예관련 이야기까지도 스스럼없이 나눌 수 있다. 오히려 북측 사람들이 먼저 말을 건네기도 하고, 농담을 던지기도 한다.

## "감사합니다"가 입에 뱀 '금강산 사람들'

금강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소위 '금강산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정착된 문화가 있다. 지나가는 차량(관광차량, 직원차량, 북측차량 등)을 보면 무조건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환영해주는 '축복 서비스'와 무전기 대화시(금강산에서는 핸드폰 사용이 불가하므로, 직원들은 무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마지막에 '감사합니다'로 대화를 끝내는 것이 그것이다. 얼핏 생각하면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인 것 같지만, 이 두 문화가 우리에게 금강산에 가져다준 변화는 매우 크다.

현대와 손잡고 일하는 북측 관계기관 사람들은 처음에 우리가 손을 흔들어 인사할 때 무표정한 표정으로 넘기기 일쑤였다. 아





무래도 그러한 표현이 좀 어색하고 멧쩍게 느껴졌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멀리서 봐도 서로 손을 흔들고 인사한다. 못보고 지나쳐서 인사를 못했을 때는 심지어 먼저 와서 인사하거나, “○○선생, 왜 아는 척도 안하나? 관심이 식었구만” 하면서 농담을 하기도 한다. 참 반가운 변화이다.

뿐만 아니라, 무전기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무전기 대화에서의 표현은 사실상 매우 딱딱하다. 그러나 금강산 사람들의 무전기 대화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드러운 편이다. 특히 대화를 마칠 때는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하여 상대를 존중해 준다. 북측 관계기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도 어김없이 감사의 표현을 건넨다. 처음에는 아무런 대답도 없던 그들이 요즘에는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의 표현을 같이 사용한다. 그렇게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듯 하다. 북측 사람이건 남측 사람이건 같은 민족이고,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심과 표현은 똑같이 느끼는 것 같다.

금강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긴장을 많이 하게 된다. 아무래도 북측이라는 곳에 대한 낯설음이나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군사분계선을 넘어서면 ‘구선봉’이라는 곳에서 잠시 인원 점검을 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 곳에서 북측 군인이 직접 관광버스에 올라타게 된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웃고 이야기하던 관광객들은 군인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지고, 긴장한다. 관광 안내 가이드가 긴장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어도 본능적으로 긴장하게 되나 보다.

### “선생님은 이빨이 없습니까?”

첫날 많이 긴장한 관광객들은 이튿날 본격적인 관광이 시작되면서 많이 편안해지는 것 같다. 특히 북측 봉사원(남측에서는 웨이트리스라고 함)이 있는 북측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북측 안내원과 함께 산행을 하면서 점점 굳어졌던 마음이 풀리고, 자연스럽게 러워지는 것 같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약간의 오해도 생기게 마련이다. 한번은 ‘뚝란관’이라는 북측 식당에서 냉면을 주문한 손님이 냉면 면발이 너무 질겨 ‘가위’를 달라고 한 적이 있다.

이에 북측 봉사원이 “가위가 뭐 하는데 필요하십니까?” 라고

물었다. 손님은 냉면을 잘라 먹으려고 한다고 말했고, 이어지는 봉사원의 대답은 “선생님은 이빨이 없습니까?” 였다. 웃어야 할까, 울어야 할까?... 남측에서는 냉면집에서 가위로 잘라 주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북측에서는 냉면을 잘라 먹지 않는다고 한다. 냉면은 ‘장수’의 의미를 담은 음식이기 때문에 잘라 먹으면 복이 달아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도 달라졌다. 매일 남측 관광객들을 접대하는 봉사원들은 그들의 식습관과 특성을 차츰 이해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손님이 냉면을 주문하면 “선생님, 가위가 필요하십니까?” 하고 먼저 물어 보기도 하니깐 말이다.



뿐만 아니라, 식당 팁 문화에도 변화가 있다. 예전에는 팁에 대한 이해를 잘 하지 못하여 손님이 팁을 주면 기분 나빠하고, 도로 가져가라고 화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요즘에는 친절함 서비스와 접대에 감동하여 손님이

팁을 주면 조용히 받거나 또는 테이블에 슬쩍 놓아두면 자연스럽게 가져간다. 이것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게 되어 생김 변화라고 할 수 있다.

### 지금도 역시 ‘대화와 타협’은 진행 중

금강산에서 근무하는 우리쪽 직원들은 누구보다 북측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이지만 서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때론 트러블이 생기기도 한다. 작년에는 금강산 육로관광이 활성화 되면서 관광객이 급증하였는데, 이 시기의 큰 실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남북 최초 합작 호텔인 ‘금강산호텔’이 개관 한 것이다. 남측의 자본과 기술력, 북측의 노동력이 결합되어 탄생한 금강산 호텔에는 10여 명의 남측 관리자를 제외하고는 약 300명의 북측 직원이 일하고 있다. 이 호텔이 오픈 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우리와 북측의 체제가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달라, 합의단계에서부터 설계·공사 단계까지 힘든 일이 많았던 것이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호텔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중에, 북측 공사 인부 여러 명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엘리베이터가 신기했던지 작업 중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한 적이 있었다. 한 두 번이면 괜찮았을 텐데, 작업에 차질이 올 정도로 엘리베이터를 오르내리자, 남측 공사업체의 직원하나가 좀 짜증도 나고 해서 약간은 장난 어린 말투로 “그만 좀 하지, 똥강이지야” 라는 말을 했다. 남쪽에서는 그 표현이 약간은 애정 어린 표현이기에 별 뜻 없이 한 말이었는데, 그 말을 들은 북측 인부는 인격 모독이라며 상부에 보고했고, 북측 공사 인부 전체가 작업을 멈추고 철수해 버리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생각보다 일이 크게 되자, 그들에게 사과하고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이해시키기는 했지만, 말 한마디로 그렇게 모두가 철수해 버리다니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역시 문화적 차이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된 계기였다.

금강산호텔에서 일하는 북측 접대원들도 처음보다 많이 부드러워졌다. 처음에는 손님이 와도 인사도 잘 하지 않고 본체만체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손님이 들어오면 웃으면서 먼저 인사하고 친절하게 대해 준다.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대화와 타협이 있었고, 지금 역시 그 대화는 진행 중이다.

### 학생들 금강산 방문 급증은 반가운 일

위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많은 변화들이 있다. 서로를 대하는 자연스러움, 말투에서부터 서로 다른 생각을 이해하는 것까지... 이것이 바로 금강산 관광이 가져다 준 가장 큰 수확이 아닌가 싶다.

특히 작년부터는 학생들이 금강산을 많이 찾고 있다. 그들은 이곳 금강산에 와서 이론이 아닌, 실제로 보고 느끼는 산 경험을 하고 돌아가게 된다. 그들이 바로 미래의 통일 세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북측 역시 남측과 손잡고 해 나가는 사업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알아 가고 있기에 앞으로 다가올 변화는 지금까지의 변화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 지금도 변화하는 이 땅에서, 변화될 미래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 이영민

2003년 11월 입사한 그녀는 지난해 6월 금강산사업소 기획팀으로 발령받은 현대아산 여직원 1호. 일반 기능직이나 관광조정(가이드)을 제외하면 여직원으로는 본인이 처음 인지라 그만큼 더 잘하려 노력한다고... 통일을 현장에서 배울 수 있기에 학생 관광객 이더 많았으면 좋겠다

### 금강산관광의 특별한 의미

1998년 현대 금강호의 출항으로 시작된 역사적인 금강산 관광사업은 분단 반세기 만에 이루어진 최대의 남북경협사업으로, 2005년 5월 현재까지 100만명에 가까운 국내의 관광객이 금강산을 다녀왔다. 남북경협사업의 성공적인 모델로서 금강산관광은 그동안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은 물론 남북 화해와 동북아 평화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 금강산관광은 어떻게?

- 출발 10일전까지 금강산관광 전국 대리점에 관광신청서 제출 (여권용 사진 2매 포함)
- 출발 10일전까지 관광요금 납부
- 출발 당일 집결지(금강산콘도: 강원도 고성군)에 도착하여 관광증, 승차권 등 수령
- 남측출입사무소(통일전망대 내)로 이동하여 출입수속 후 금강산으로 출발

※ 문의처 : 금강산관광 안내센터(02-3669-3000) / [www.mtkumgang.com](http://www.mtkumgang.com)

### 금강산 관광 역사

- 1998. 06. 16 정주영 명예회장 소떼몰이 방북
- 1998. 11. 18 현대 금강호 첫 출항(금강산관광 시작)
- 2000. 09. 30 김정일 국방위원장 금강산 방문
- 2002. 11. 13 금강산 관광객 50만명 돌파
- 2002. 11. 23 금강산관광지구법 발표  
⇒ 50년간 금강산관광지구 토지이용권 확보
- 2003. 02. 14 금강산육로 시범관광 실시
- 2003. 09. 01 금강산 육로관광 시작
- 2004. 06. 19 금강산 1박2일 관광상품 본격 시행
- 2004. 07. 03 금강산 당일 관광상품 본격 시행
- 2004. 11. 19 금강산골프장 착공식
- 2004. 11. 20 신계사 대웅전 낙성식
- 2005. 06. 금강산 관광객 100만 돌파 예정



### 주요 관광 포인트

#### 구룡연

시원한 폭포와 계곡이 인상적인 구룡연 코스는 외금강을 대표하는 관광코스. 산행시간은 상팔담 코스를 포함해 4시간이며, 대표적인 명소로는 구룡폭포와 상팔담, 비봉폭포, 연주담, 옥류동, 금강문, 목란관, 신계사 등이 있다.

#### 만물상

층암절벽과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산악미가 인상적인 만물상은 금강산 관광의 절정을 이루는 코스. 산행시간은 4시간으로, 대표적인 명소로는 천선대, 망양대, 안심대, 절부암, 귀면암, 삼선암, 만상정, 관음폭포 등이 있다.

#### 금강산온천

금강산 온정리(溫井里)에 자리한 금강산 온천은 50℃의 천연온천수를 사용하는 최고급 온천이다. 그림 같은 금강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노천탕이 일품이며, 금강산 관광객들은 다시 오고 싶은 이유로 금강산온천을 꼽고 있다.

#### 삼일포 · 해금강

관동 8경 중 하나인 삼일포는 36개의 봉우리가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는 담수호이며, 해금강은 바다의 금강산으로 바다와 금강산의 산악미가 만나 절경을 이룬다. 삼일포와 해금강의 관광시간은 각각 1시간이며 대표적인 명소로는 봉래대, 연화대 등이 있다.

# ‘6·15 공동선언’의 정신은 ‘평화’



**을** 해는 을사조약이 체결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동시에 8·15광복 60주년을 맞는 해요, 한일수교 40년,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이 되는 해다. 이 모든 것들은 한결같이 우리민족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구한말로 통칭되는 1세기 전 국가와 민족의 치욕을 생각한다면, 남한과 북한은 합심하여,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변신과 변화를 통찰하고 대응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6·15 공동선언’의 정신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민족평화’이다. 민족평화야말로 민족통일과 민족내부의 이익증진이라는 명제를 달성하게 만드는 근본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 북한은 올해 신년 공동사설에서 ‘자유, 평화, 통일’이라는 3대 공조를 제시한 바 있으며, 핵무기 보유선언 직후부터는 더욱 빈번하게 민족공조를 주장하고 있다. 또 6·15 공동선언 실천 남북 해외 공동행사를 올해에는 평양에서 열기로 남북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많은 남쪽 사람이 평양을 방문하게 될 것이다.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민족은 대동단결하고 있는가? 남북공조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남북공조까지는 이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남북 협력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유감스럽게도 남북관계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기 드문 경색 국면에 처해 있었다.

북한은 작년 7월부터 김일성 조문, 대량 탈북자 입국 등을 이유로 들면서 공식적 대화·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킴으로써 남북 당국자간 대화는 소강상태에 빠졌던 것이다. 또 지난 2월 초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직후부터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대북 지원 단체들의 평양방문조차 막았던 것이다.

이처럼 경색국면이 지속되거나 강화되면서 남북간에 확대되어야 할 경제교류가 당장 타격을 받게 되었다. 작년 남북 교역액

은 6억 9,700만 달러로 전년의 7억 4,400만 달러에 비해 3.8% 감소했다. ‘6·15 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교역은 급물살을 탔으나, 작년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2004년 6월 제3차 6자회담도 북핵문제와 관련해 ‘동결 대 보상의 원칙’을 일구어냈으나, ‘안전하고 검증가능하여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 CVID라는 요구를 북한이 거부함으로써, 결국 제4차 6자회담은 현재까지 공전을 계속하면서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얼마전 이루어진 남북 차관급 회담(5. 16~19)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바로 이 시점에서 ‘6·15 공동선언’의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또 그것은 진정한 민족공조 문제의 본질이기도 하다. ‘6·15 공동선언’의 정신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민족평화’이다. 민족평화야말로 민족통일과 민족내부의 이익증진이라는 명제를 달성하게 만드는 근본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왜 평화가 중요한가? 왜 민족평화가 남북공조의 핵심적 가치인가?

현재 남한과 북한 간에는 ‘좋은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비전의 불일치가 존재하고 있다.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식 사회주의 사이의 차이가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인간에게 가장 좋은 삶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제기된 ‘영원한 질문’ perennial question에 대해 자신있게 답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질문은 본질적으로 논쟁적이다. 완벽주의자들은 정답이 있다고 주장할 것이고 반완벽주의자들은 정답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식 사회주의를 각각 신봉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경쟁하며 살고 있는 것이, 남북한 사회의 현주소라는 사실이다. 설령 ‘좋은 삶’ good life에 대한 질문에 자신있게 답변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자나 북한식 사회주의자들 가운데 누구도, 그와는 상이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기본적 입장이 잘못되었다고 설득할 수 있는 지적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이처럼 삶의 방식이 어쩔 수 없을 만큼 달라서 긴장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그 긴장관계가 쉽게 중식될 수 없다고 생각될 경우, 과연 대안은 무엇인가? 그 가운데 어느 하나를 소멸시키려 하지 말고 둘 사이에 평화가 유지되도록 하여, 이른바 '모두스 비벤디' modus vivendi(잠정적 협정, 일시적 해결책)가 구축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공동선언은 남한과 북한사이의 이른바 '평화협약'과 유사한 선언으로서, 남북한 사이의 '모두스 비벤디'의 창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좋은 삶'에 대한 불확실성이야말로 남한과 북한 사이에 평화를 확립해야 할 이유가 되는 셈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일단 그 구체적 내용을 차치하고 포괄적 정신을 요약한다면, '서로 다른 사유 및 이해체계를 지닌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협력과 공존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련의 정치적 선언'인 셈이다. 즉 공동선언은 남한과 북한사이의 이른바 '평

화협약'과 유사한 선언으로서, 남북한 사이의 '모두스 비벤디'의 창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이 '통일에 대한 선언'도 아니고, '통일을 위한 선언'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선의와 협력을 다짐하는 선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나타난 '모두스 비벤디'는 통일의 가치 못지않게 의미심장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남한식 자유민주주의나 혹은 북한식 사회주의나 하는 등, '좋은 삶'에 대한 비전이 상이성을 넘어서서 상충성을 띠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통일의 정치'보다 '평화의 정치' 혹은 '모두스 비벤디의 정치'가 아니겠는가...

'모두스 비벤디'의 정치라고 할 때 일심동체로 표현될 수 있는 '합의의 정치'보다 '평화의 정치'가 한민족 공동체의 근본적인 가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모두스 비벤디'의 정치비전에서는 서로 좋은 삶의 비전이 다른 집단들에게 자신들의 방식에 따라 자신들의 가치를 추구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원칙의 문제'라기보다 '슬기로운 문제'라고 간주한다.

'모두스 비벤디'의 정치는 평화와 공존의 필요성에 따라 이웃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일러주고 싶은 욕구를 자제하거나 절제하는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의 기업인들은 미국의 기업인들과 함께 사업을 하기 위해 그들에게 낙태나 종교, 대통령제의 장단점, 노동의 유연성, 혹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관한 자신들의 견해를 피력하고 설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과실송급에 관한 상업적 분쟁이나 범죄자인도협약의 한계 같은 문제에 대한 상호간의 견해 차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공동으로 마련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민족공동체 내에서도 사정은 동일하다.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자나 북한식 사회주의자가 같은 하늘을 이고 사는 것은 분명하지만, 같은 신을 숭배할 필요는 없다. 또 같은 땅을 밟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돈오돈수(頓悟頓修)나 돈오점수(頓悟漸修)에 대해 같은 견해를 가질 필요는 없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들 가운데 자유민주주의자이건 사회주의자이건 그 누구도 강압적인 방식으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시도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점이다.

원칙적으로 사람들은 정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만, 각론적으로 들어가면 정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심입심색이다. 자유의 원리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자와 경제적 평등의 원리를 중시하는 사회주의자는 부딪치게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의'와 같은 가치에 대하여 민족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 각자는 자신의 정의관을 주장하기 때문에 정의는 쟁점적인 것이 될 뿐 아니라, 값싼 것으로 변질될 수 있지 않을까.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라" *suum cuique tribuere*는 것을 규정하는 정의의 가치는 특정한 요구나 불만을 가진 사람들 모두에게 오·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의에 관한 합의의 요구는 파국이나 내전 상태로 전락할 수도 있다. 입장이 다른 양측이 자신의 주장관철을 위해 정의의 개념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는 내전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바로 그랬다.

또 홉스는 크롬웰로부터 비롯된 영국의 내란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정치적 이상으로서 정의를 평가 절하하는 한편, 평화를 강조했다. 평화는 '모두스 비벤디'에 입각한 현상이다. 물론 '모두스 비벤디'를 주장한다고 해서 정의나 인권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실 "정의가 없는 왕국은 무엇인가, 대도적들인가?" *remota iustitia, quid sunt regna nisi magna latrocinia*라며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다면, 우리는 "인권이 없는 왕국은 무엇인가, 대도적들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나타난 '모두스 비벤디'의 정신이 중시하는 규칙이 있다면, 서로가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규칙은 '통일의 규칙'이 아니고, 다만 '평화의 규칙'일 뿐이다. '평화의 규칙'의 정당성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만일 평화공존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의 죽음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





는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모두스 비벤디'의 정치는 민족통일보다는 낮은 목표를 설정한다. 그러나 낮은 목표라고 해서 이상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며, 실현가능한 목표라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만약 사람들 간의 삶의 방식이 어쩔 수 없을 만큼 서로 달라서 긴장과 갈등이 악화될 경우, 그 가운데 어느 하나를 소멸시키려 하지 않고 오히려 둘 사이에 평화가 유지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어떻게 민족평화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치적 원칙' political principle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현명함' political prudence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했던 사람이 토마스 홉스였다. 그는 실천이 가능한 종교적 관용은 좋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러 종교전쟁과 영국의 시민혁명의 와중에서 살았던 홉스는 자신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바울이나 베드로 혹은 아폴로를 추종했던 초기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독립성을 지지했다. "폭력적인 분쟁 없이 평화가 달성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가장 좋은 일"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민족평화의 선언이다. 5년이 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 정신을 새삼 그리워하는 것은 그것이 실현된 측면보다 실현되지 않은 측면이 크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초심이 중요하다면 남한과 북한은 5년 전 남북정상회담이 평화의 선언을 했을 때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 결의를 다져야 할 것이다.



박효중 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 교수  
현재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공동대표,  
교과서 포럼 상임대표, 한국국민윤리교육학회 회장

## 남북관계의 특수성

이원명 정치학 박사 · 전 통일부 보좌관

분단국 내의 양국관계의 법적 지위의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문제의 핵심은 분단국 내의 두 국가가 각각 독립된 국가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에 있다. 독일의 경우 동서독 '기본조약' (1972. 12. 21조인)에 "독일에는 두 국가가 실제로 존재하지만, 그들은 서로 외국이 아니며 그들의 상호관계는 '독일민족 내의 특수관계'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서독 정부는 독일 내의 동서독 평화공존을 국법상으로 확고한 정책적 조치로 완료한 후, 곧이어 1973년 9월 동독정부와 합의한 양독기본조약 부속문서에 의거 동독과 함께 UN에 동시에 가입한다. 동서독은 국가적 통일 이전의 잠정적 과도단계에 해당하는 동서독간의 평화공존 관계를 통일이 되기 전, 17년 동안 지속했다. 동서독간의 이러한 관계 설정은 통일국가를 대비한 일종의 '잠정적 해결책' 'modus vivendi'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독일과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 남북간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고 할 때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것이 북한의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이다. 남북 당국자간의 협상과 대화를 통해 통일을 성취한다고 할 경우, 정치적 차원에서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은 불가피할 뿐 아니라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법적차원에서 북한의 지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한반도 안에 단 하나의 국가만을 상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고려할 때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독일과 유사한 방식으로 해법을 찾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73년 6·23선언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통일이 성취될 때까지 과도적 기간 중의 잠정조치'로서 남북한이 UN에 동시가입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이후 북한은 1991년 남한과 함께 UN에 가입했다. 1991년 12월에 체결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약칭 '남북기본합의서')에서는, 남북의 관계를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 역시 통일전 독일처럼 통일국가를 대비한 일종의 '잠정적 해결책'으로써 남북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 클릭 한방에 통일정보가 '한눈에!'

현대경제연구원 '통일정보뱅크'

● [http://www.hri.co.kr/research/nk\\_main.asp](http://www.hri.co.kr/research/nk_main.asp)



● 주요내용 : 통일뉴스, 북한투자 정보, 북한말 한마디, 북한의 관광지 등 소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관리하는 이 사이트에서는 다른 사이트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북한투자정보'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특히 경험실 무(진출 유의 사항)에서는 '성공적인 대북 진출을 위한 18가지 유의사항'을 소개하고 있는데, 북한에 진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유익한 정보가 담겨 있다.

통일코리아21

● <http://www.unikorea21.net/kor/index.asp>



● 주요내용 : 남북관련소식, 남북관계 동향, 통일교육, 북한이해, 통일자료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일 한반도를 위한 통일코리아21 '통일 자료실'에서는 실제 북한의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동영상 자료를 수록하고 있으며, 최근 자료로는 2005년도 김정일의 생일행사, 광복의 천리길 답사행진, 그리고 긴 머리 단속 등이 있다.

안녕? 친구야!

● <http://www.hifriends.org/>

● 주요내용 : 평화 일기장, 북녘 돋보기, 평화 나누기, 그림누리 등. 남과 북 어린이들의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안녕? 친구야!'는 남북어린이가동무가 함께 하는 사이트이다. '북녘 돋보기'에서는 북한의 아동만화영화를 볼 수 있다. 또 북한 각 지역의 문화재, 어린이 동요와 동화, 그리고 북한사회 전반의 문화에 대한 소개 등은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볼거리이다.

## 국가상징 5종



우리나라 국가상징 5종

- 국기國旗는 태극기太極旗
- 국가國歌는 애국가愛國歌
- 국화國花는 무궁화無窮花
- 국새國璽는 나라도장印章
- 나라문장國章은 대한민국

**국새國璽는 나라도장印章**  
○ 국새는 국사國事에 사용되는 관인으로 나라의 중요 문서에 국가의 상징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국새의 날인은 국가주요 행위의 최종적 완성의 의미를 지닌다. 국새는 국가의 권위를 상징하며, 나라의 시대성과 국력, 문화를 반영한 상징물이다.

○ 정부는 199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제 50주년을 맞아 국새를 바꾸었다.



나라문장의 의미

- 우리의 나라문장은 태극문양을 무궁화 꽃잎이 감싸고 있는 형태이다.
- 사용처 - 정부중요문서, 시설, 상품
- 나라문장의 근거 - 나라문장 규정 (1963. 12. 10/각령 제 1671호)
- 표준규격(1970. 7. 3/대통령령 제 5151호 공포)

나라꽃 무궁화無窮花

○ 우리민족의 사랑을 받아온 무궁화는 나라를 상징하는 꽃으로 '영원히 피고 또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 우리민족은 무궁화를 고조선 이전부터 하늘의 꽃으로 귀하게 여겼다. 그리고 신라를 槿花戀(무궁화의 나라)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자료제공 국가상징선양회



!느낌표



# “이 프로그램을 보면 아이들은 벌써 ‘통일’ 된 것 같아요”

MBC !느낌표 '남북어린이 알아맞히기 경연' 프로그램 녹화현장

“말 꼬리 잇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  
(당황하는 모습이 재미있다는 듯 피식 웃는다)

“우리말로 하면 ‘끝말 잇기’ 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북한 말을 이해하지 못해 문제를 풀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의 민족이면서도 60년간 ‘딴 나라’로 살아온 남북한 언어생활의 차이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죠.”

MBC !느낌표 책임연출 김영희 예능국장이 인터뷰 말문을 열려는 내게 되레 던진 첫 멘트이다.

국내 예능 프로그램으로는 최초로 우리 안방전파를 타고 있는 북한TV 방송물, ‘남북어린이 알아맞히기 경연’.

21세기 유일의 분단국인 남과 북... 그래서 그는 ‘한민족’이라는 사실을 재미있게 일깨워 줌으로서 자라나는 세대에게는 통일에 대한 관심을, 기성세대에게는 통일이 곧 될거라는 희망을 주고 있다면 기획의도는 적절한 것이라며 이보다 더한 보람은 없겠단다.

이 프로그램의 녹화현장은 어느 어린이 프로그램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였다. 하지만 실제 TV화면에서 보는 ‘북한 쪽 스튜디오’ 장면과 “지금부터 남북어린이 알아맞히기 경연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이젠 낯익은 북한의 오복숙 아나운서의 출연 신Scene등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자못 궁금했다.

‘북측과 이원방송을 하는 걸까, 아니면 혹시 북한 스태프들이 녹화 때마다 서울에 오나?’

김영희 예능국장이 지난 2003년 ‘남북 방송인 교류’ 행사로 5일간 평양을 머물 때 본 조선중앙TV의 아동 프로그램 ‘전국 소학교 학생 알아맞히기 경연’에서 기획한 발상도 특이하지만, 제작 역시 첨단 방송기법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작품’이다. 이 프로그램의 제작 방법은 북한의 ‘알아맞히기 경연’과 똑같은 방송세트장을 MBC 스튜디오에 만들어 북한 퀴즈문제로 녹화한 후 북한 프로그램 화면과 합성하는 것.

그리고 신동엽 MC가 프로그램 진행 중간중간에 옆방 문지방을 넘



어 다니듯 북한 스튜디오로 이동하는 장면이 평균 20초가량 나오는데, 이 또한 별도의 '매직 스튜디오'에서 촬영, 자연스럽게 합성한 것이란다.(실제 북한 스튜디오 쪽으로 넘어가는 촬영 신 Scene때 진행자 신동엽씨는 무대 뒤를 한 바퀴 휩 돌고는 다시 무대 위로 올라온다)

아나운서 멘트 역시 동일한 방송 테그닉. 예를 들어 북한의 오복숙 아나운서가 북한TV에서 "지금부터 전국 소학교 학생 알아맞히기 경연대회를 시작 하겠습니다"라는 경연 시작을 알리는 장면의 경우 경력 7년차의 MBC 성우 김지영씨가 '전국 소학교 학생' 대신 '남북 어린이'라고 외화 더빙하듯 녹음한 뒤 미리 김지영씨 입술만 촬영, 오복숙 아나운서 얼굴에 옮겨 합성 처리한 화면을 TV에 내보내는 것이다. 경력 32년의 베테랑 성우 박태호씨가 맡고 있는 북측 심사위원 목소리도 마찬가지.

김영희 예능국장의 사인과 함께 4시간 이상 계속되는 녹화는 보통 자정을 훌쩍 넘기기 일수인 강행군. 서울이나 수도권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어린이들이나 동행한 학부모들이 지칠 만도 한데 매 녹화 때마다 현장분위기는 의외로 열기로 가득하다. 참가 어린이들의 재치 만점의 너스레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기발한 답변에 박장대소가 절로 나고, MC 신동엽씨의 예기치 못한 애드립이 참가 어린이, 학부모는 물론 스태프까지 배꼽을 잡게 한다.

### 자체 설문 응답 어린이 90%가 "통일은 돼야 한다"

"제작기획 단계에서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 조사대상 전국 초등학교 4학년 중 응답자의 90%가 '통일은 돼야 한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어린이들에게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해주고 있나요, 통일에 대한 우리네 무관심 수준이 심각하다고 하면서, 남북한 교육현실과 '딴 나라'로 되어가는 남북 문

화차이에 대해 우리 기성세대들은 우리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아이들 눈높이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고 싶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보면서 스스로 우리네 분단 현실에 대해 생각해 하는 것이 제작진의 편집의도란다. 그래서 그런가.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남북간의 상이한 문화에서 오는 궁금증을 해소시켜줄 별도의 설명이 있을 법 한데 그냥 넘어간다. 남측에선 볼 수 없는 것에 대해 참가 어린이들이 신기하게 반응해도 진행자는 우리쪽 의견은 넣지 않은 채 북측의 모습을 가감 없이 그대로 방영한다.

### 물음표(?)로 갔다가 느낌표(!)로 돌아온 '금강산 캠프'

지난 2월 25일 '남북어린이 알아맞히기 경연' 결승 진출 어린이들이 금강산으로 2박 3일 캠프를 다녀왔다.

첫날 새벽 6시에 출발한 일행은 오후 2시에 통일전망대를 지나 남쪽 출입사무소를 거쳐 북쪽 출입사무소에서 북쪽 사람과 첫 대면을 한다. 아래위로 훑어보는 북쪽 군인 아저씨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긴장한 것도 잠시, 참가 어린이 15명은 이내 눈앞에 펼쳐지는 겨울 금강산의 풍광에 취해 연신 재잘대던 입마저 다문다.

금강산호텔에서 묵은 '금강산캠프' 2박 3일 동안 해금강, 삼일포, 비룡폭포 등 명소 탐방과 함께 평양모란봉교예단 공연을 관람한다. 특히 '평양으로의 수학여행' 마지막 티켓을 놓고 북쪽의 자연, 지리, 상식 문제로 겨룬 '금강산 로드 퀴즈쇼'는 설상가관<sup>雪上加霜</sup> 못진 한판 승부였다. '내가 진짜 북으로 가는 거 맞아?', '북쪽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인사할까?' 등 갖가지 물음표(?)를 안고 출발한 아이들.

무서울 줄만 알았던 북쪽 아저씨와 언니들의 환한 미소, 그리고 겨울 금강산 절경은 같은 민족이 사는 곳을 '외갓집에 놀러갔다 오듯' 편하게 다녀왔다는, 그래서 휴전선, 군인 아저씨가 필요없는 통일이 꼭 돼야 한다는 다짐에 참가 어린이 모두가 몽글몽글한 느낌표(!)로 돌아온, 오래오래 기억될 2박 3일이었던다. 

사진제공 MBC



허운 (주)경향C&L 총괄편집장  
본 소식지 편집위원이기도 한 그는, 작고하신 부친 고향이 평북 희천인지라 얼마 전 취재차 중국 단둥에 갔을 때 압록강 너머 북녘 땅이 손 내밀면 달을 듯 가깝고도 살 같아 낯설지 않더라고

# '바보상자'도 통일 희망을 밝히는 '등대'

MBC '느낌표' 책임연출 김영희 예능국장



지난 2월 24일 '느낌표'로 제17회 한국방송프로듀서상 예능부문 작품상을 수상한 김영희 국장(45)은 올해로 PD생활 20년. 공익과 오락을 절묘하게 조화시킨 예능 프로그램 연출자로서 그의 명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일요일 일요일밤에'의 '이경규가 간다', '책! 책! 책! 책을 읽읍시다', '칭찬합시다' 등 8할대의 프로그램 성공타율은 그가 그동안 수상한 60여개의 크고 작은 상들이 말해준다. 조끼차림에 더부룩한 수염, 짧은 스포츠형 머리에 굵은 빨테 안경에서 뿜어내는 인간내는 영락없이 맘씨 좋은 '잘집 아저씨'다. 얼마 전 그런 그가 불과 보름여 만에 차장에서 부장대우로 다시 국장에 오르는 파격 인사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는 1주일에 두세 번 사무실 소파에 모포를 까는 '노숙자' (?)를 자처하면서, 가족 모두가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해 노력하는 '칭찬받는 아빠PD'의 길을 더욱 독려하는 것 같다. 쉽고 재미있어 누구나 편하게 볼 수 있는 형식, 남과 북의 문화차이를 아이들 눈으로 들여다보면서 통일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남북어린이 알아맞히기 경연' 이란다.

'느낌표'에서 시도했던 '평양 어린이 도서관 지어주기' 기획이 무산된 것이 가장 아쉽다는 그는 "북한 어린이는 다 맞추는 문제를 남쪽 어린이들이 몇 개라도 틀리는 날이면 그날 홈페이지 게시판이 다운될 정도로 항의성 글이 폭주합니다. '왜 북에 더 유리한 방송을 하느냐는 거죠. 아직도 북을 이겨야 하는 적, 절대로 지면 안되는 경쟁상대로 보는 이들이 있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 했다. 그는 요즘 연내에 진행할 '평양수학여행' 기획으로 여느 때 보다 곱절은 더 분주하다. TV가 '바보상자'가 아니라 우리네 통일에 꿈과 희망을 밝히는 '등대' 역을 할 수 있다는 확신 아래...

글 허운



금강산캠프 참가후기

# 금강산 찾아가자~ 일만 이천 봉~♪

MBC 남북어린이 알아맞히기 경연 '금강산 캠프' 를 다녀와서

2월 25일, 아침 일찍 금강산에 가려고 MBC에 보였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온몸이 뽕뽕 열고, 긴장된 내 마음도 뽕뽕 얼어버렸다.

여러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우리는 어깨가 으쓱했다. 하지만 강원도 인제의 38선을 지나 점심을 먹고 남쪽 출입사무소에서 북쪽 출입사무소에 진입할 때는 설레임 보다는 두려움에 내 심장이 마구마구 뛰기 시작했다. 휴전선만 없다면 같은 민족, 같은 핏줄인데 낯선 외국에, 그것도 무서운 오지에 혼자 가듯 떨고 있는 내 자신이 미웠다.

북쪽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해금강과 삼일포를 보았다. 북쪽으로 가는 길에 파도가 치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해금강이었다.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보면서 마음 한 구석에 남아있던 응어리가 한 순간 탁! 풀어져 버리는 것 같았다.

안내원 북쪽 언니가 통일을 위해 미리 다녀가는 우리에게 북녘 땅에서의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고 싶다는 '배우자' 라는 노래를 불러주셨다. 우리가 답가로 '남북어린이 알아맞히기 맞추기 경연' 주제곡인 '언제나 열심히 공부 해야죠' 를 불러드리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잡아주시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 임을 느꼈다.

둘째 날 2월 26일, 온천에 들른 뒤 평양 모란봉 교예단 공연을 보았는데, 세계 1위의 공연팀이라는 말이 실감 났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남과 북 공 주고 받기' 공연에서는 '정말 우리 한민족이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다. 이와 함께 하루 빨리 통일이 되어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같이 마음껏 뛰어 놀고 싶다는 생각도 간절했다.

마지막 날엔 꿈에 그리던 금강산에 올랐다. 내가 아빠, 엄마랑 자주 오르던 청량산처럼 쉬울 줄만 알았는데, 정말 너무 힘들게 목표지까지 올라갔다.(이번 기회로 살이 많이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겨울이라 볼 것이 눈 밖에 없을 줄 알았는데, 비룡폭포와 구룡폭포는 흐르다가 그대로 얼어버린 모습까지도 너무 아름다워서 그 감동은 내 가슴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었다.

그곳을 떠나는게 안타까웠지만, 우리는 아쉬움을 뒤로한 채 무거운 발걸음을 떼며 남쪽으로 돌아왔다. 이 '금강산 캠프' 여행을 통해 나는 '통일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 는 생각을 다시금 새기게 되었다. 📞



홍지연 인천 용현남초등학교 5학년

보내는 사람

---

---

---

□ □ □ - □ □ □



받는 사람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통일교육소식' 담당자(앞)

1 4 2 - 7 1 5



본 '통일교육소식' UEM은  
여러분의 마당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의견은 통일과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네 맘과 정성을  
담는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질타를 바랍니다

통일교육원이 통일의 열망을 일깨우는 작은 불씨가 되겠습니다



본 창간호 코너 중 가장 좋았던 칼럼이나 기사가 있다면? 칼럼(&기사) 제목 쓰시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 통일교육소식

## UNIFICATION EDUCATION MAGAZINE

창간호 2005. **06**

본 소식지에서 다뤘으면 하는, 또는 본인이 알고 있는 귀한 자료를 알려주세요.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등의 넓은 관점에서 생각해 주세요

- 인물(화제의 인물, 역사적 인물, 주변의 숨은 인물 등)
- 사건(국내외 화제, 통일정책 관련 기사의 심층취재 등)
- 통일교육 현장(관련기관, 학교현장, 우리반 통일이야기, 내가 본 우리 아이들의 통일관 등)
- 새터민들의 '나도 한 마디'
- 문화(문학, 공연, 영화 등 엔터테인먼트)

FK  
평화  
통일

FK  
평화  
통일

통일, 북한소식, 북한 생활·문화 등 궁금한 사항은? (통일 Q&A코너)

엽서를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과 기념품을 드립니다

신설했으면 하는 코너가 있다면?





린(隣) - 瑞日

그의 그림 테마인 隣(隣)-曲線共同體는 곡선 문화권 속에서 살아 온 우리민족 특유의 공동체의식을 분석, 한국미에 대한 새로운 심미감을 표현하고 있다. 린(隣)은 원융(圓融)한 것으로 '하나가 모두요 모두가 하나됨'을 뜻한다



화가 임무상

- 개인전 8회(공평아트센터, 예술의전당 미술관 외)
- 한국 전업미술가협회 창립전(서울시립 미술관)
- 한국 미술대작전(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
- 21세기 한국화 초대전(성균관대학교 박물관)
- 한국의 미 그 아름다움전(조선일보 미술관)
- 서울회 창립전(밀알 미술관)
- 한국 미술세계화전(LA, New York)
- Point17, Paris(Galerie Christine Colas / Paris) 등
- 현재 (사)한국전업미술가협회 KPAA 자문위원, 서울회 운영위원  
samganglim@hanmail.net, www.rhin.co.kr





## 통일의 물결이 한반도 분단의 벽을 깨고 남과 북을 '하나' 로 만드는 그 날,

우리민족이 다시 어우러져 춤추는 그 날을 위해 통일교육원은 남북간의 평화와 협력자세를 배양하고,  
통일실현 의지를 함양하는 '통일열망'의 작은 불씨가 되겠습니다

